

南北韓比較 經濟

南北韓經濟現況比較

1979

國土統一院

目 次

I.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3
1. 總量概念의 差異	3
가. 國民總生産과 社會總生産	3
나. 國民所得의 計算方法의 差異	5
다. 所得計定의 誤差 및 漏落	6
2. 資料比較上의 制約條件	8
가. 資料의 制約	8
나. 國民總生産과 國民厚生의 隔差	9
3. 要 約	10
II. 南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의 基本路線	11
1. 經濟體制的 差異	11
2. 經濟政策의 基本路線	13
가. 工業化戰略의 差異	13
나. 對外指向과 對內指向	15
다. 國民厚生과 國防優位	16
III. 主要部門別 現況 比較	18
1. 總量部門	18
가. 概 況	18
나. 國民總生産	19
2. 財政規模	23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23
나. 歲 出	24

다. 歲 入	27
3. 農水産部門	30
가. 農業構造의 比較	30
나. 農業生産 基盤	32
다. 食糧作物生産実績	35
4. 鈹工業部門	37
가. 政策目標 및 戰略	37
나. 鈹工業 資源	38
다. 重化學工業 現況	40
라. 輕工業 現況	45
마. 技術水準 및 展望	47
5. 社會間接資本	48
가. 概 念	48
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比較	49
6. 貿易 및 國際收支	54
가. 貿易規模	54
나. 商品別 및 地域別 貿易構造	56
7. 國民生活水準	58
IV. 南北韓 經濟構造의 強弱點 및 經濟成長 展望	62
1. 經濟開發成果	62
가. 韓 國	62
나. 北 韓	63
2. 構造的 強弱點 比較	64
가. 韓 國	64
나. 北 韓	66
3. 展 望	66

I.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1. 總量概念의 差異

가. 國民總生産과 社會總生産

우리는 한 나라 國民經濟의 總量을 파악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國民總生産(GNP)이라는 概念을 사용하며, 평균수준은 1人當 國民總生産으로 비교한다. 國民總生産은 일정 기간에 生産物市場에 供給된 純生産物의 總額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에서는 모든 生産單位의 生産總量을 社會總生産(Global Social Product - GSP)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國民總生産은 生産物市場에 供給된 純生産物의 總額으로서 生産單位의 生産總額으로부터 生産單位相互間에 去來된 中間生産物을 公제하고 있는데 비하여, 社會總生産은 모든 生産單位의 生産額을 合計한 것이므로 中間生産物만큼은 二重計算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75年度 産業聯關分析表에 의하면 生産單位의 生産總額은 20兆9,904億원이며, 이중 生産單位相互間에 去來된 中間需要額은 11兆2,683億원이다. 따라서 國民總生産額은 生産總額에서 中間需要額을 公제한 9兆7,221億원이며 이는 生産總額의 46.3%에 해당된다.

北韓에서는 生産物市場과 生産要素市場의 区分이 없으므로 中間生産物도 포함된 모든 生産單位의 生産總額을 社會總生産이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國家에서는 需要의 側面에서의 支出國民所得이라는 概念도 없으므로 中間生産物의 需要와 最終生産物의 需要를 分類하여 計算할 수 없으며 따라서 生産單位의 生産物總額을 合算한 社會總

生産의 개념만을 사용하는 것이다.¹⁾

한편 国民總生産에 포함된 生産單位는 모든 財貨와 서비스를 生産物市場에 공급하는 單位를 포함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파악하는 国民總生産은 財貨와 用役의 附加價值를 集計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社会總生産은 財貨의 生産만을 포함시키며 用役に 대해서는 生産物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社会總生産에서는 3次産業中 社会間接資本을 제외한 기타의 서비스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共産國家에서 서비스部門의 附加價值를 生産物の 개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의 價值論에서 生産的勞動(Productive Labor)을 物質的生産에 投入된 勞動이라고 규정하고 物質生産에 사용된 勞動價值를 社会總生産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国民總生産과 社会總生産의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国民總生産은 「財貨 및 用役의 附加價值」이다.

따라서 $GNP = \text{全産業의 生産總額} - \text{中間生産物}$ 이다. 이에 비하여 社会總生産은 「財貨의 生産總額」이다.

따라서 $GSP = \text{全産業의 生産總額} - \text{用役}$ 이다.

1) 中間生産物の 市場은 스톡(stock)의 市場이며 最終生産物の 市場은 플로우(flow)의 市場이다. 国民所得은 「플로우」에 해당되며, 그중 일부가 貯蓄되어 投資되면 「스톡」을 그만큼 擴大시키고, 「스톡」의 擴大는 다시 「플로우」를 擴大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共産主義國家의 經濟理論에서는 「스톡」과 「플로우」의 개념이 없으며 모든 生産物은 勞動價值를 基準으로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社会總生産은 勞動價值로 파악된 生産物の 總額인 것이다.

나. 國民所得의 計算方法의 差異

自由主義國家에서는 市場經濟에서 활동하는 經濟主體인 家計, 企業, 政府 등의 經濟活動이 명백히 구분되며, 따라서 生産物市場에 供給되는 總生産物의 經濟主體別 区分의 形態에 따라 國民總生産(GNP), 國民純生産(NNP), 國民所得(NI), 個人所得(PI), 可処分所得(DI) 등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國民所得의 形成과 循環過程에 대한 分析의 目的과 巨視經濟의 理論構成에 매우 유익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生産要素市場과 生産物市場이 구분될 수 없으며 따라서 生産物의 区分形態에 따른 國民所得이라는 개념도 명백하지 않다. 그들은 物質的生産總額인 社會總生産으로부터 減価償却費만을 제외한 價額을 國民所得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經濟主體가 家計, 企業, 政府등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모든 生産單位와 政府가 다같이 黨의 所有이기 때문에 物質的生産物의 總額에서 減価償却額을 제외한 生産物은 모두 黨에 歸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生産物의 区分에 있어 最終受領人이 누구이든 國內에서 生産된 生産物은 모두 國民所得인 것이다. 國民所得은 엄격히 말하면 黨의 所得이라고 볼 수 있다.²⁾

우리가 사용하는 國民所得은 國民總生産에서 減価償却額을 제외한 國民純生産額에서, 다시 間接稅를 빼고 補助金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共產圈의 國民所得과 비교하면 間接稅와 補助金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共

2) 그러므로 生産物總額이 「플로」와 「스톡」으로 구분될 필요도 없다. 中間生産物(企業間 去來)이나 最終生産物이 모두 다같이 黨의 所得이며 동시에 富(wealth)인 까닭이다.

産圈에서는 間接稅를 포함시킨 대신 補助金의 개념은 없다. 따라서 共產圈의 國民所得은 生産物全體를 中間財이던 最終財이던 모두 포함시켜 去來價格으로 集計하고 있으므로 去來稅賦課額만큼 過大評價되고 있다. 더우기 去來稅가 部門別로 均衡되고 있지 않으므로 産業部門間的 國民所得의 評價額이 衡平을 잃게 된다. 예를들면 農業部門은 去來稅가 賦課되지 않는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農産物價格을 生産原價以下로 策定하기 때문에 農業所得은 工業所得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過小評價되고 있다.

다. 所得計定の 誤差 및 漏落

資本主義國家에서는 일반적으로 國民所得水準을 기준으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등의 区分이 가능하나 共產圈에서는 이러한 区分이 不分明하다. 共產主義國家들은 國民所得에 관련하여 볼때 소련이나 東歐圈의 修正主義國家들과 中共, 越盟, 北韓등과 같은 閉鎖主義國家들로 区分할 수 있다. 北韓은 그중에서도 가장 閉鎖的이기 때문에 資料의 制約이 많으며, 各種統計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다.

資本主義國家에서도 國民所得의 推計에 있어 誤差나 漏落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先進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는 社會會計(Social Accounting)計定을 통하여 經濟各部門의 綜合的인 循環을 파악할 수 있으며, 産業聯關表의 作成으로 産業間的 모든 去來額과 最終生産物市場의 去來額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所得計定에 있어서의 誤差는 적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초 쿠즈넛트(Simon Kuznet)가 國民所得의 實証的分析에 성공하였는데 이때에 社會會計計定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와같은 分析이 가능했으며, 레온티에프(W.W. Leontief)는 모든 産業의 聯關關係

를 나타내는 投入產出分析 (Input-Output Analysis) 을 통하여 經濟循環構造를 한층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經濟發展이 아직도 뒤지고 있는 開發途上國들은 先進國家에 비하여 社會會計制度나 產業聯関分析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農業部門에 物物交換이 存在하고 또는 生産과 消費가 未分離된 自給經濟에서는 貨幣經濟의 比重이 적기 때문에 所得推計에 있어 評價上의 誤差 및 漏落이 생길 要素가 크다. 에컨대 킨들버거 (Charles P. Kindleberger) 는 버마의 國民所得은 計定過程에서 300% 정도의 漏落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완벽하지는 못하나 社會會計計定の 役割을 하는 國民所得 資金循環分析이 작성되고 있으며 產業聯関分析은 거의 완벽하게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國民所得計定の 推計에 있어 誤差나 漏落의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共產主義國家에서는 일반적으로 先進國이던 開發途上國이던 모든 生産手段이 國有化되어 있고 私有財産이 없으므로 國民所得은 國家所得의 形態로 파악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우기 資源의 配分에 있어서 國家計劃委員會가 劃一的으로 統制하고 生産要素費用이 國家支出豫算에 策定되고 있으며, 小規模의 家內生産要素도 全無하므로 原則적으로 計定上의 漏落要素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北韓과 같이 閉鎖的인 社會에 있어서는 各種統計資料를 公式的으로 發表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저한 保安조치에 따라 外部의 專門家들이 資料를 入手할 수 없으며, 간혹 發表되는 統計도 政治的으로 事實보다 誇張하거나 相互連結性이 없는 경우가 많다.

2. 資料比較上の 制約条件

가. 資料의 制約

資本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의 經濟比較에 있어서는 異質的인 體制에서 발생하는 概念 및 制度上的 差異가 比較上の 隘路要因이 될 뿐 아니라, 특히 閉鎖的인 共產國家의 資料面에서 오는 制約이 더 많다.

첫째, 北韓은 各種 統計資料를 거의 發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서 各種 統計資料에 대해서 保安措置가 엄격하여 經濟政策의 立案에 참여하고 있는 高位幹部들도 精確한 資料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外部의 專門家가 이들의 經濟現況을 分析한다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北韓에서는 1965年부터 國民所得 成長指標조차 發表하고 있지 않으며, 간혹 단편적으로 統計를 發表할 경우에도 倍数 또는 百分率指數를 사용하기 때문에 基準値를 알 수 없는 限, 實數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둘째로 이들이 發表하는 數字는 事實보다 誇張하거나 具體性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眞實한 資料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더우기 北韓의 統計는 縱橫의 數字를 合計하면 一致되지 않거나, 正常的인 생각으로 도저히 納得을 할수 없는 數字가 許多하다. 지난 1974年 11月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4次會議에서 金日成 農村테제 發表 10周年記念으로 政務院總理 金一이 報告한 數字중에서, 1973年과 1974年の 農業成長率이 각각 30%라고 發表하였는데, 이러한 數字는 合理的인 思考로는 도저히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같은 誇張된 數字를 公公然하게 強調하여 宣傳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国民總生産과 国民厚生の 隔差

우리가 분명히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資本主義體制가 生産活動에 있어 能率的이며, 價格機構를 통한 資源配分이 經濟成長 또는 發展에 能率的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는 分配의 側面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國家는 国民厚生面에서 資本主義國家보다 더욱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말에 아브라모비츠(Moses Abramovitz)는 美国과 소련의 經濟水準을 비교하면서 소련의 1人당 GNP는 미국의 40%水準이나, 国民厚生面에서 消費生活의 격차는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결국 1人당 GNP, 즉 生産水準의 격차보다 1人당消費, 즉 生活水準의 격차가 더욱 격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共產主義國家가 스탈린식의 一國家社會主義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重工業優先이라는 經濟政策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같은 重工業優先主義에 따라 産業間의 不均衡이 深化되고 있을뿐 아니라 消費財産業의 부족과 消費水準의 低下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北韓은 閉鎖的社會에서 극도의 重工業優先을 추구한 결과 60年代에는 經濟開發에 있어서도 蹉跌을 빚어냈으며 国民生活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軍需産業主導型 經濟로 偏重된 北韓에서 1人당 GNP의 增加는 그곳 住民들의 生活水準이나 福祉向上과는 별로 큰 相關이 없으며, 南北韓間에 存在하는 国民總生産의 隔差보다 生活水準의 隔差는 더욱 커지고 있는 實情이다.

3. 要 約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總量概念의 差異 및 資料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南北韓經濟의 比較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南北韓의 經濟現況을 나타낼 比較項目을 가능한 限 同一化시키려고 努力하였으며, 특히 資料의 處理에 있어서는 北韓이 發表한 數字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지나치게 誇張되었거나 相互矛盾된 數字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資料와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하여 最大限으로 客觀化시키는 方向에서 推定하였다.

II. 南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의 基本路線

1. 經濟體制的 差異

우리 韓國의 經濟體制는 個人的 財產所有를 인정하고, 職業選擇이 自由로우며, 個人的 經濟活動의 目標가 利潤追求에 있는 것과 이러한 모든 經濟活動은 價格機構에 의한 自由競爭의 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價格機構를 통한 自律的인 資源配分과 利潤動機에 입각한 創意的인 企業活動은 經濟發展에 있어 매우 能率的이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經濟의 成長이나 發展보다도 分配의 問題에 力點을 두었고,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는 經濟가 成長되면 貧益貧과 富益富를 擴大시켜서 一般大衆은 貧困과 饑餓에 시달리며 小數의 資本家들만이 富를 누리는 顛倒된 社會를 形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顛倒된 社會란 본래 勞働者가 支配해야할 社會에서 資本家가 支配하고 있는 것은 主客이 顛倒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 勞働者들의 革命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共同社會를 實現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資本主義가 高度로 발달된 先進國에서는 共產化의 위협이 없고 오히려 東南亞나 아프리카와 같은 後進된 地域이 共產化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資本主義經濟가 發展될수록 矛盾에 직면하여 革命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의 主張과 다른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즉 共產主義는 資本主義化에 성공한 先進國에는 발붙일곳이 없는 반면 資本主義化에 失敗한 後進國에서 발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로스토우(W.W. Rostow)는 共產主義는 資本主義化에 失

敗한 나라들이 감염되기 쉬운 「過渡期の 疾病」(a disease of transition)이라고 하였다. 사실상 현재 共産国家들인 소련, 中共, 東歐, 越盟, 北韓 등의 모든 나라중에서 資本主義를 거쳐서 共産国家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어쨌든 共産主義国家에 있어서는 生産手段의 私有가 許容되지 않으며, 모든 資源의 配分, 職業의 選択, 價格의 決定 등은 中央集權的인 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共産主義體制는 마르크스의 理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北韓의 經濟體制도 마찬가지이다. 北韓의 經濟體制가 共産主義的 特徵을 밝아온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生産手段의 國公有化를 완료하였다. 北韓은 195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모든 個人的 私有財産과 中小商工業을 「利用」, 「制限」, 「改造」라는 3段階의 口號를 내걸면서 完全히 消滅시켰고, 壓力과 強制手段으로 國營 또는 協同團體에 吸收시켰다.

둘째로는 위와같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農業生産의 集團化를 바탕으로 모든 經濟活動은 中央集權的인 計劃當局의 命令과 指示에 의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모든 生産單位의 生産의 運營指標는 利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中央計劃當局의 劃一的인 管理에 의하여 統制받고 있다.

이와같은 中央集權的 管理運營에 의한 計劃經濟體制에 있어서는 計劃機構와 執行機構(生産單位)간에 마찰과 矛盾을 빚어내며 전반적으로 上部機關인 計劃當局과 下部機關인 生産單位間에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다.

또한 中央當局에 의해 公定된 價格은 生産과 消費의 調節機能을 갖지 못

하며, 勞動價值說은 그 自體의 矛盾으로 商品의 品質을 測定할 基準이 없기 때문에 品質管理가 없는 量的인 目標達成에 치중하게 된다.

나아가서 利潤動機가 없는 生産活動은 生産單位의 創意와 能率을 排除함으로써 生産性을 低下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이나 東歐諸國에서는 이와같은 生産能率의 低下를 방지하기 위하여 1960年代 後半부터 生産單位에 利潤原理를 적용시키고 決定機能을 下部機構에 어느 정도 分散시키는 등, 體制内部의 矛盾을 제거하기 위하여 制度上的 改革을 斷行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共產主義國家가 資本主義의 原理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修正主義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아직도 1930年代에 소련이 취하였던 原始的인 中央集權的 計劃管理體制를 그대로 固守하고 있다. 이것은 스탈린이나 레닌의 傳統的共產主義를 계승하는 것이므로 教條主義라고도 부른다.

2. 經濟政策의 基本路線

가. 工業化戰略의 差異

韓國은 經濟政策의 基本目標를 國民福祉의 向上에 두고 安定基調에 입각한 高度成長을 追求해왔다.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에 착수하여 1978년까지 17년동안 年平均 9.3%의 高度成長을 계속하였으며, 지난 73년末의 石油波動이후 '74, '75의 兩년에 있어 世界經濟가 전반적인 不況과 負의 成長을 기록하였을 때에도 韓國은 國民生活의 安定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각 7.5%와 7.0%의 착실한 成長을 기록했다.

우리는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計劃을 추진하는 基本方針으로써 自由企業의 原則을 土臺로 하되 基幹産業과 그 밖의 重要部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에 干涉하거나 間接적으로 誘導하는 「指導받는 資本主義體制」를 지침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社會間接資本등을 擴充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조성하고, 投資財源의 圓滑한 調達을 위하여 外資導入體制를 確立하였으며, 國際協力の 擴大와 함께 貿易面에서도 적극적으로 開放體制로 이행하여 輸出伸張에 注力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궁극의 進路인 工業化의 方向에 있어서도 第1次計劃期間(1962~66)에는 電力, 石炭등 에너지資源과 肥料등 基幹産業, 鐵道, 港灣, 通信등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였고 輸出增大와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 注力하고 農業生産力을 擴充하였으며, 第2次計劃期間(1967~71)에는 鐵鋼, 機械등 工業構造의 高度化와 輸出産業主導의 高度成長, 高米價政策에 따른 農業所得의 增大를 기하였으며, 第3次計劃期間(1972~76)에는 造船, 製鐵, 機械등 重化學工業의 育成, 國土의 綜合開發, 科學技術의 革新, 새 마을運動등 우리의 現實과 開發戰略에 알맞는 工業化政策을 단계적으로 進行하였다.

이에 비하여 社會主義諸國中에서도 가장 硬直적인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北韓은 처음부터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을 실시하여, 輕工業과 住民福祉를 희생시키고 나아가서는 部門間的 격심한 不均衡으로 計劃의 蹉跌을 빚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61년부터 70년까지의 10년간 重工業과 輕工業間的 投資의 配分은 무려 80%대 20%의 심한 不均衡을 나타냈으며, 70년대에 들어와서도 軍需聯關重工業에 偏重한 결과 住民들의 消費生活이 犧牲된 것은 勿論, 1961년부터 始作된 7個年 計劃은 当初의 目標를 훨씬 下

廻하는 実績으로 인해 3년이나 延長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나. 對外指向과 對內指向

우리는 開發初期에 있어 投資財源이 不足했으므로 國際資本協力を 통한 投資의 擴大를 기하였으며, 또한 自然資源도 恒久的으로 欠乏된 형편이므로 계속해서 對外貿易을 擴大시킴으로써 對外指向的인 經濟發展, 즉 外向性成長(outward-looking growth)을 추구해 왔다. 이와같은 外向性工業化政策의 결과, 韓國은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획기적인 輸出伸張을 기록하였고 輸出産業이 主導하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1960년에 32백만弗에 불과했던 輸出額이 1978년에는 127억弗에 이르게 되었으며 輸出商品의 90%가 工產品으로 구성되어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立証하였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原始的形態의 閉鎖體制인 아우타르키(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다. 1966년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社會主義經濟建設에 있어 가장 重要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宣言함으로써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를 確認하였다. 이와같은 「아우타르키」體制는 「各國의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確保해야 한다」는 스탈린式의 一國家社會主義體制를 모방한 것이며, 한편 1960년대 中半期부터 共產圈諸國으로부터의 援助가 中斷됨으로써 孤立主義는 한층 強化되었다.

그러나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이 不足한 國家에서 對外貿易에 依存하지 않은 對內指向的인 成長에는 限界가 있으며, 北韓의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가장 큰 隘路의 하나는 이러한 孤立主義의 채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主義가 自國中心의 經濟를 強化하여 自給自足의 體

制를 요구하게 된 것은 資源이 豊富한 소련으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했으며, 궁극에 있어서는 資源이 不足한 衛星國家를 소련經濟에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예를들면 2次大戰前 東歐諸國의 對러시아貿易은 約1%, 衛星國相互間의 貿易은 12%에 불과했으나 2次大戰後 衛星國으로 編入된 以後에는 對소貿易이 31%로 늘어났으며 共產圈內部的 貿易이 65%로 늘어났다. 이것은 「아우타르키」體制를 내세운 소련의 의도가 對自由圈貿易을 止揚하고 對소貿易依存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北韓의 경우 資源이 不足함에도 불구하고 「아우타르키」를 固守하고 對內指向的開發을 추구한 결과 1978년의 輸出額은 불과 8억 6,600만 弗로 韓國의 15分の1 水準이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經濟沈滯를 打開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을 시도하여 外資導入을 추진하고 있으나, 對內投資與件未備로 인한 受容能力의 不足으로 償還能力이 限界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外債償還에 커다란 試鍊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對外指向的工業化를 이룩하지 못한 國家가 外資導入에 依存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임을 단적으로 實証하고 있다.

다. 國民厚生과 國防優位

韓國經濟는 自由企業의 原則을 土臺로 하여 輸入代替産業, 輸出産業, 重化學工業등 民間企業을 主軸으로 단계적인 工業化過程을 추구하였으며 정부는 이와같은 工業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基幹産業과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기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1960년대의 開發初期부터 農業生産의 基盤을 擴充하기 위하여 水利施設, 耕地整理와 肥料 및 農業의 增産과 農業機械化에 힘썼고 1968년부터는 農漁民所得増大事業과 高米價

政策으로 農漁民所得의 劃期的인 增大를 이룩하였다.

이와같이 韓國經濟가 工業化와 農業開發에 있어 經濟構造에 따라 段階的이고 効率的인 經濟開發을 추구해 왔음에 비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政策과 軍事力強化를 위한 消費財産業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北韓은 이른바 「經濟力發展과 軍事力強化를 併行한다」는 國防 및 經濟의 併進策을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軍事力強化爲主의 工業化를 실시해왔던 것이다. 그 結果 北韓은 軍事費를 은폐시키지 않았던 1968년에는 歲出豫算의 32.4%인 6억 676만 弗의 軍事費를 支出함으로써 GNP의 23.6%나 차지하였으며, 당시의 1人當 GNP가 194 弗의 水準이었는데 軍事費의 1人當負擔額은 約 45.9 弗에 이른 것이다.

Ⅲ. 主要部門別 現況 比較

1. 總量部門

가. 概 況

南北韓의 人口는 1978년 현재 韓國이 37,019千名, 北韓은約16,978千名으로 추정되고 있다. 人口成長率은 韓國이 1.58%, 北韓은 2.5%로써 韓國보다 北韓이 상당히 높다. 經濟活動人口는 韓國이 13,932千名으로 總人口의 37.6%, 14歲以上人口의 58.0%이며, 北韓은 74년 현재 5,306千名으로 당시의 總人口 15,382千名の 34.5%로써 同年 韓國의 34.8%보다 오히려 低率이다. 이것은 최근 北韓에 勞動力不足 現象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인 것이다. 勞動力이 不足한데 總人口에 대한 經濟活動人口가 적다는 二律背反的인 現象은 두가지의 理由때문일 것이다.

첫째 韓國은 人口增加率이 1962년에는 2.9%나 되었으나 78년에는 1.58%로 현저히 낮아져서 人口增加率이 鈍化되고 있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總人口에 대한 14歲以上人口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으나, 北韓은 現在까지도 人口增加率이 높기 때문에 14歲以上人口의 比率이 韓國보다 낮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經濟活動人口의 比率도 적을 것이다.

둘째 北韓은 戰爭準備의 強化로 인하여 14歲以上の 勞働可能人口중 많은 부분이 軍服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活動參加率도 韓國보다 오히려 低率일 것으로 推定된다.

이와같은 人口構造外에도 北韓은 生産方式이 勞働集約的이므로 勞動力

需要가 많기 때문에 相對적으로 勞動力 不足現象을 加重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勞動集約的生產方式과 그로 인한 勞動生產性의 低位는 社會主義國家의 共通된 現象이다.

國土面積은 韓半島 全體가 22 萬㎞인데, 이中 韓國의 面積은 98,954 ㎞이고, 北韓은 122,370 ㎞로써 韓國이 45%, 北韓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國土의 利用面에서는 韓國은 平野地帶가 많고 氣候條件이 좋아서 農業生產과 交通運輸面에서 有利한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 더우기 韓國은 國土의 綜合開發에 따라 全天候農業施設과 全國의 1日生活圈에 속하는 高速道路網의 完成등으로 國土를 効率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國土의 利用에 不利한 條件과 開發에 있어서의 落後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地下資源에 있어서는 約 90%의 鉍產資源이 北韓에 偏在되었고 水資源도 풍부하여 工業의 立地條件은 韓國보다 월등히 有利한 立場에 있다.

나. 國民總生產

이러한 條件下에서 南北韓은 앞서 말한바와 같은 體制의 差異와 開發戰略에 있어서의 현저한 差異를 갖고 獨自적으로 각각 經濟開發을 추구해왔는데, 그중 總量規模를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國民總生產의 規模는 1978년 현재 韓國은 GNP가 473.5 億 弗이며 1人當 GNP는 1,279 弗의 水準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GNP가 91.9 億 弗, 1人當 GNP는 541 弗의 水準으로서 GNP는 北韓이 韓

국의 19.4%, 1인당 GNP는 42.3%에 不過하다.³⁾

이와같은 GNP의 현저한 隔差는 韓國經濟가 60年代以後 10%以上の 長期的인 高度成長을 추구하였고, 특히 1973년 石油波動以後의 世界的不況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高度成長을 持續한 반면, 北韓에 있어서는 최근 投資率이 35~40%의 高率임에도 불구하고 資本의 浪費와 非効率的인 投資計劃에 기인하여 經濟成長率이 4~5%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GNP에 대한 軍事費負擔率은 韓國의 경우 1978년에 5.4%에 불과하나, 北韓은 22.4%로 엄청나게 높다. 이와같은 高率의 軍事費負擔은 經濟成長面에서 生産的인 支出이 아니므로 그만큼 經濟成長率을 鈍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投資率이 35~40%나 되는 높은 比率임에도 불구하고 軍需産業등 生産性이 낮은 部門과 非効率的인 投資計劃에 기인하여 成長率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3) 北韓의 GNP는 지금까지 北韓이 發表한 단편적인 1인당 所得額 및 그 成長指數를 根拠로 推定하였다. 한편 1977년, 1978년은 北韓의 豫算 및 決算資料를 통한 政府消費支出 및 固定資本形成, 歲出入間의 純差額을 이용한 在庫變動, 北韓住民 1인당食費 및 恩賜係數와 人口數를 적용한 民間消費支出, 對外去來등을 토대로 支出接近法에 의한 GNP를 추계하였다.

南北韓主要指標

(1978年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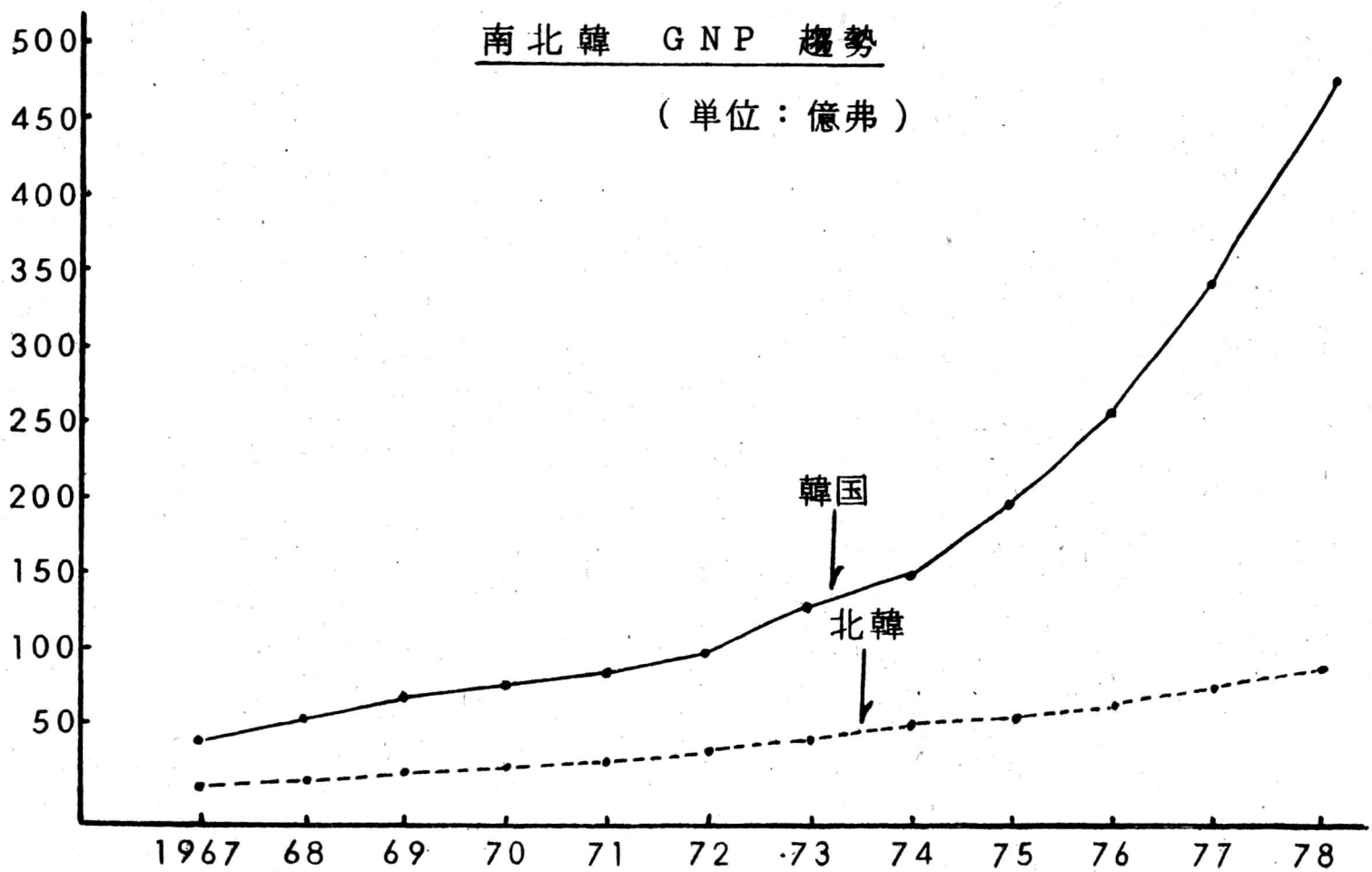
区 分	单 位	韓 国 (A)	北 韓 (B)	B / A (%)
人 口	千 人	37,019	16,978	45.9
人 口 增 加 率	%	1.58	2.5	158.2
国 土 面 積	km ²	98,954	122,370	123.7
G N P	億 弗	473.5	91.9	19.4
1 人 当 G N P	弗	1,279.1	541	42.3
軍 事 費 負 担 率	%	5.4	22.4	414.8
投 資 率	%	31.7	35 ~ 40	118.3
成 長 率	%	11.6	4 ~ 5	38.8

자료 韓國：經濟企劃院

北韓：国土統一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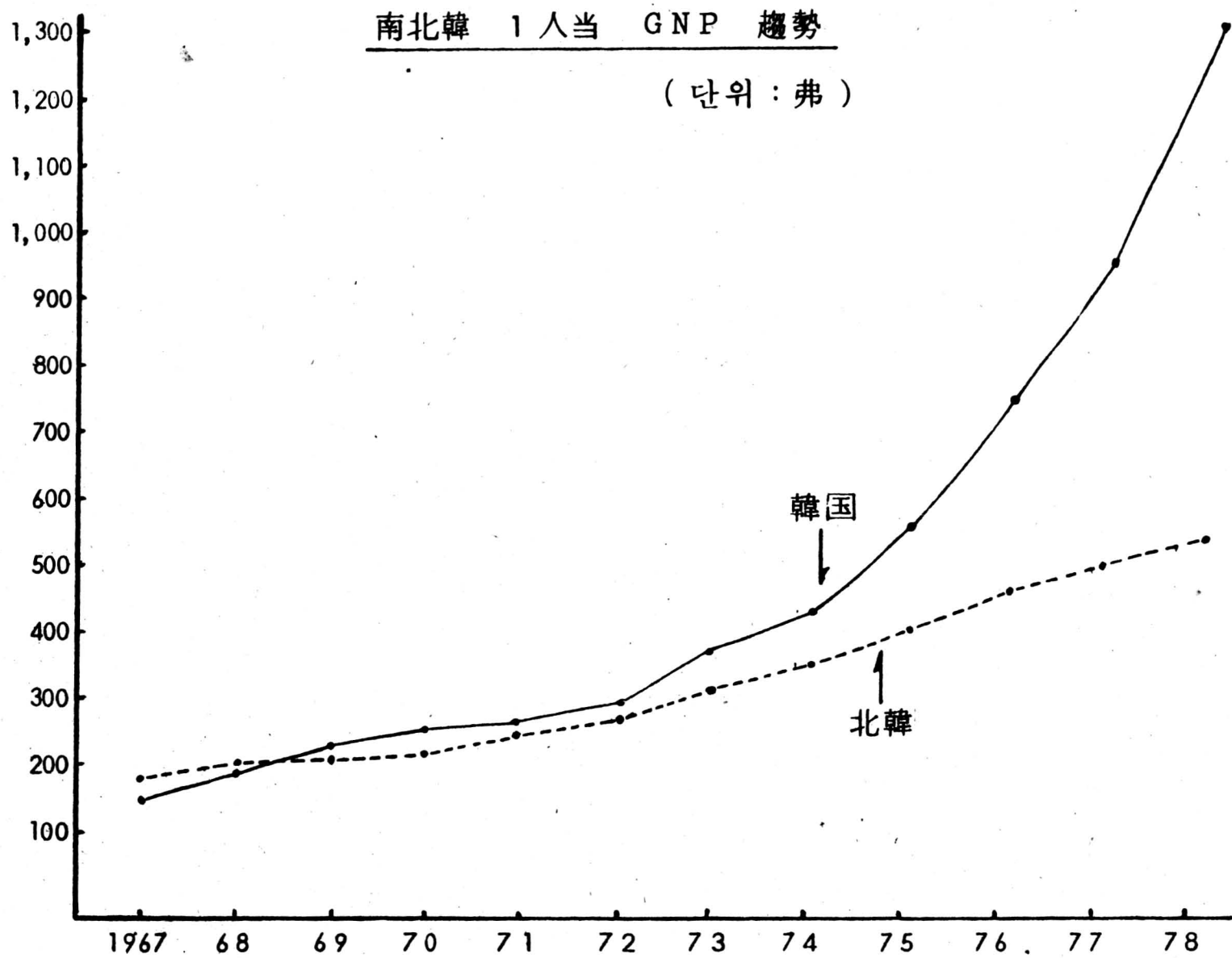
韓國은 1次計劃期間中(1962~66年)의 年平均 7.9%로부터 2次計劃期間(67~71)에는 9.6%, 3次計劃期間(72~76)에는 9.8%로 成長速度가 加速化되었고 全期間(62~78)에는 9.3%의 高度成長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첫째 閉鎖體制로 인한 技術導入 및 外資導入의 受容能力이 具備되지 못하여 對外經濟協力이 여의치 못했으며, 對外貿易伸張이 불가능하여 成長의 限界에 직면하였고, 둘째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策으로 産業間의 심각한 不均衡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兵器의 生産은 需要와 供給의 雙方에 있어 前後方의 聯関效果가 없으므로 成長基盤을 조성할 수 없었으며, 셋째 兵力動員에 의한 勞動力不足으로 生産增加의 限界性에 직면함으로써 심각한 沈滯現象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南北韓의 GNP는 지난 10여년간 1967년에는 韓國이 46.7억弗, 北韓이 23.9억弗로써 韓國이 2.0배이었으나 1978년에는 韓國이 473.5억弗, 北韓이 91.9억弗로써 5.2배에 이르게 되어 그 隔差가 크게 擴大되었다.



韓國	46.7	58.7	70.8	84.7	87.8	100.3	130.6	150.4	199.3	269.7	351.7	473.5
北韓	23.9	25.7	27.6	29.7	34.7	40.8	47.8	55.8	64.0	77.2	83.2	91.9
韓國/北韓	2.0	2.3	2.6	2.9	2.5	2.5	2.7	2.7	3.1	3.5	4.2	5.2

위와같은 GNP 總量規模의 현저한 격차는 1人當 GNP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北韓은 人口가 적기 때문에 1968년까지는 GNP 總量이 적어도 1人當 GNP는 높은 水準에 있었으나, 1969년을 分岐點으로 韓國의 1人當 GNP가 北韓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점점 그 隔差는 커지고 있다.



韓國	154.9	190.4	224.4	262.6	267.1	299.4	383.0	433.5	564.8	752.0	965.2	1,279.1
北韓	186	194	203	213	243	279	319	363	406	478	502	541

2. 財政規模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韓國은 私有財産制度와 民間經濟活動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財政의 國民經濟에서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작다. 1978년 豫算의 경우 中央政府의 一般財政規模는 3兆 5,170 億원으로 72.7 億弗 규모로서 GNP 總額 22兆 9,176 億원, 473.5 億弗에 비하면 15.3%의 比率이다. 즉 國民經

濟의 財政負擔率은 15.3%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共產主義體制下的 財政은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반영하며 統制하는 기능을 가진다. 中央計劃經濟體制下的 北韓에 있어서 財政의 役割은 中央集權的統制經濟를 수행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資本主義體制下的 韓國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北韓에 있어서의 總需要는 財政의 役割이 社會的需要를 充足시키는데 基本目的이 있으므로 대부분 財政需要에 의하여 충족되고 있다. 왜냐하면 社會的需要는 集合的으로 充足되는 需要이며 個人的消費와 관련된 消費財와 서비스의 유통은 극히 制限된 상태에서 計劃經濟의 運營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社會的需要에 있어서는 生産財가 消費財보다, 軍需品이 生活用品보다, 生産增大가 勤勞者의 福祉보다 優位에 두어지므로 個人的消費는 그 比重이 지극히 적다.

따라서 北韓의 財政規模는 1978년 현재 68.6억弗로써 GNP 91.9億弗의 무려 74.6%나 된다. 이것은 同年 韓國의 財政負擔率 14.7%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으며 社會主義體制에 있어서의 財政의 特色을 反映한다. 따라서 北韓의 財政은 GNP에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個人消費를 제외한 全經濟活動을 망라한 것으로, 모든 投資支出, 政府 및 公共消費支出이 포함된 것이다.

나. 歲 出

1978年度 韓國의 一般財政部門 歲出規模는 3兆 5,170億원으로 72.7億弗 규모이다.⁴⁾

4) 豫算額 基準임.

特別會計는 事業 또는 基金管理를 위한 것이므로 순수한 財政支出은 一般財政部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價格原理를 떠난 公共收入으로서의 歲入은 一般財政部門뿐이며, 其他 特別會計는 價格原理에 입각한 것이므로 民間經濟와 같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國防費는 25億4,607萬弗로써 一般財政部門豫算의 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7年の 34.7%보다 그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이밖에 一般經費는 40.2%, 開發費가 24.8%를 차지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 1978년도 總豫算規模가 68.6億弗로서 韓國의 一般財政規模의 94.4%水準이다. 同年의 歲出構成比를 發表에 기초하여 分析해 보면, 人民經濟費가 57.3%로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軍事費는 10.9億弗로서 15.9%, 社会文化施策費가 24.7%, 機關管理費가 2.1%로 構成된 것으로 되어있다.

北韓의 年度別 歲出構成比

(단위 : %)

年度	區分	歲出總額	人民經濟費	社会文化費	軍事費	機關管理費
1966		100.0	68.4	17.3	10.0	4.3
1967		100.0	49.9	17.5	30.4	2.2
1968		100.0	48.8	17.0	32.4	1.8
1969		100.0	47.5	19.7	31.0	1.8
1970		100.0	47.0	19.9	31.3	1.8
1971		100.0	44.2	22.9	31.1	1.8
1972		100.0	55.5	25.4	17.0	2.1
1973		100.0	57.2	25.3	15.4	2.1
1974		100.0	57.0	24.8	16.1	2.1
1975		100.0	57.2	24.3	16.4	2.1
1976		100.0	56.2	25.0	16.7	2.1
1977		100.0	56.8	25.4	15.7	2.1
1978		100.0	57.3	24.7	15.9	2.1

자료 : 国土統一院 및 年度別 北韓豫算 및 決算報告.

1966년부터 78년까지北韓의 財政支出構成比를 發表에 依하여 살펴보면 재미있는 現象을 發見할 수 있다.

즉 1966년의 경우 人民經濟費가 68.4%, 軍事費가 10.0%이었으나, 67년부터 71년까지는 人民經濟費가 44~50%로 감소되고 軍事費가 31~32%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72년이후에는 다시 人民經濟費가 55~57%로 늘어나면서 軍事費는 15~17%로 격감하고 있다.

이와같이 軍事費가 時期에 따라 큰 差異가 생기는 것은, 必要에 따라서 他費目에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6년까지 「民族保衛費」라고 부르면서 歲出總額의 10%以下로 發表해온 軍事費를, 1967년부터 國防費로 改稱하고 그 構成比를 일약 30.4%로 대폭 증가시킴으로서 종전에 人民經濟費등에 은폐했던 것을 드러내 놓은것은, 60년대 中半期부터 中·蘇紛爭이 격화됨에 따라北韓이 独自の防衛體制와 함께 四大軍事路線을 追求하게 된데 基因한다.

그후 1972년부터 갑자기 軍事費가 절반으로 감소되고 人民經濟費등이 다시 크게 增加한 것은 東西和解와 赤十字會談등 南北間의 接觸에 따라 對外宣傳을 고려하여 軍事費를 他費目에 다시 은폐시켰기 때문이다. 그 實質的인 証拠로서는 1972년 이후 人民經濟費가 急增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經濟의 成長은 오히려 鈍化되고 있음이 이를 反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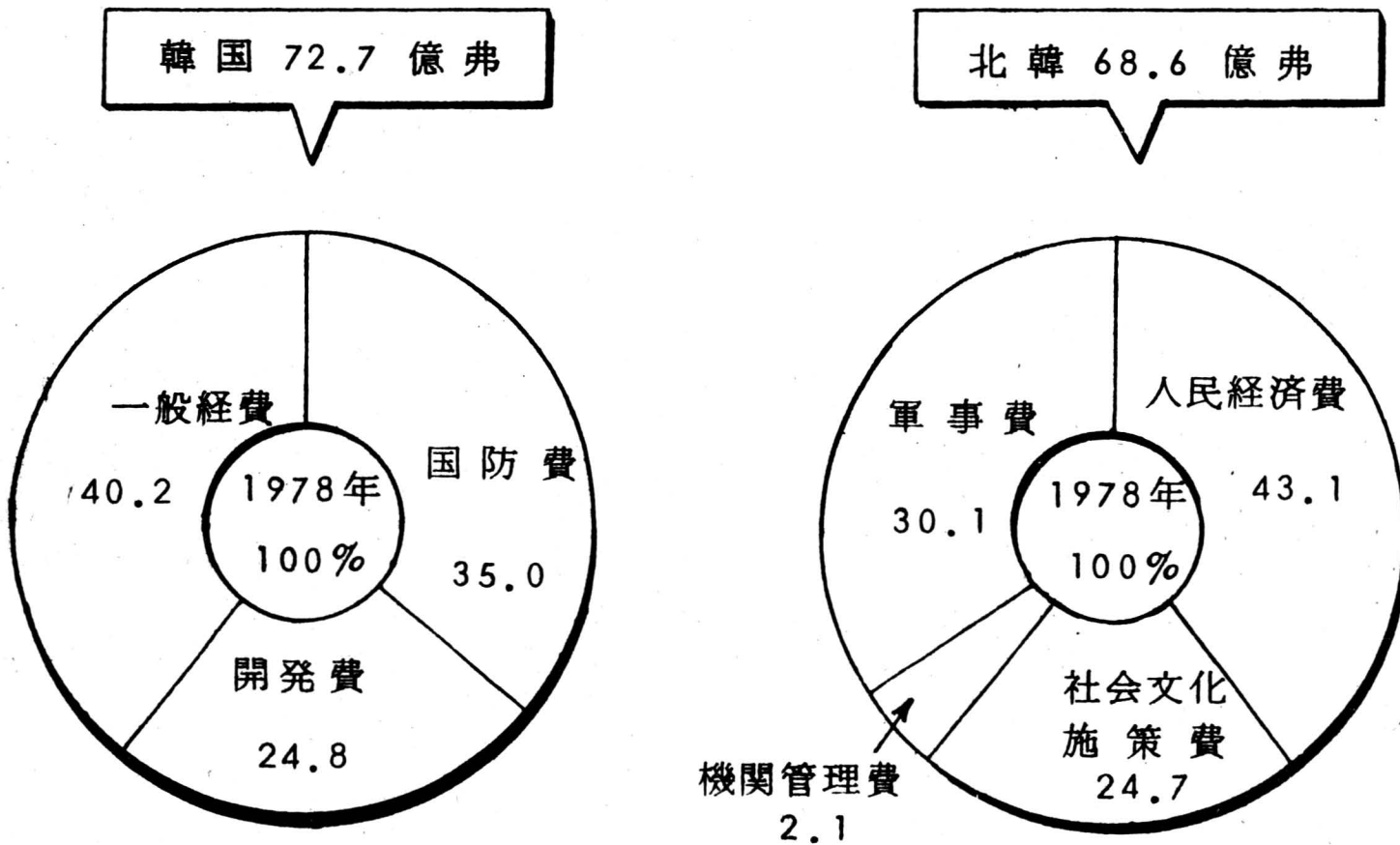
따라서 은폐된 軍事費까지 考慮한 1978년의 實際上的 軍事費는 20.6億弗 水準으로 評價되며, 이는 歲出總額의 30.1%에 該當된다. 나아가서 實際上的 人民經濟費의 構成比도 發表值 57.3%보다 훨씬 낮은 43.1% 程度에 不過할 것으로 推定된다.

北韓의 財政支出中 가장 높은 比重을 보이고 있는 人民經濟費는 基本建設投資와 其他部門으로 나누어지는데, 基本建設은 다시 生産的建設과

非生産的建設로 구분되고 있다. 生産的建設은 工業, 農業, 運輸, 通信, 商業 및 社会給養施設등 直接生産部門과 産業附帶部門이 포함되며, 非生産的建設은 住宅, 教育, 文化, 科学研究, 保健등 社会開發部門이 포함되고 있다.

基本建設은 위와같이 直接生産 및 社会間接資本등의 投資를 가리키며, 우리의 개념으로는 政府와 民間의 總投資가 이 部門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其他部門은 資本需給 国营企業의 欠損補助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基本建設投資가 人民經濟費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南北韓 歲出豫算의 構成



다. 歲 入

韓國의 財政收入은 租稅, 專賣益金, 稅外收入, 其他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租稅收入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1960 년대에는 援助收入

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73년부터 援助財源은 완전히 없어져서 財政自立을 이룩했으며, 1967년부터 租稅의 비중이 65%以上을 차지하게 되었고 1978년에는 83.5%를 租稅收入이 담당하였다. 이밖에 1978년에 專賣益金이 6.9%, 稅外收入이 7.4%, 預金 및 其他收入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歲入은 社會主義經理收入金으로 全歲入豫算을 總當하고 있다. 北韓은 대부분의 生産活動에 수반되는 收入이 財政收入인 것으로 財政規模가 GN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社會主義經理收入金の 내용은 去來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所得稅, 其他收入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각각 項目別 內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去來收入金은 國營企業所 또는 生産工場이 商品을 生産하여 商業 및 他生産機關에 인도할 때에 징수되는 物品去來收入金과 이밖에 非商品去來收入金으로 나누어지며 去來稅, 또는 消費稅의 일종으로 우리의 附加價值稅와 같다. 이는 北韓의 收入豫算中 65~70%를 차지하는 중요한 收入源이다.

둘째 國家企業利益金이란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運營되는 各種의 企業所 및 生産工場에서 형성되는 製品의 都売價格中에서 自體經費를 공제한 殘餘基金을 稅源으로 한 것으로 總豫算收入의 20%内外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協同團體所得稅란 各種協同團體의 生産活動에서 얻어진 利潤에 대해 賦課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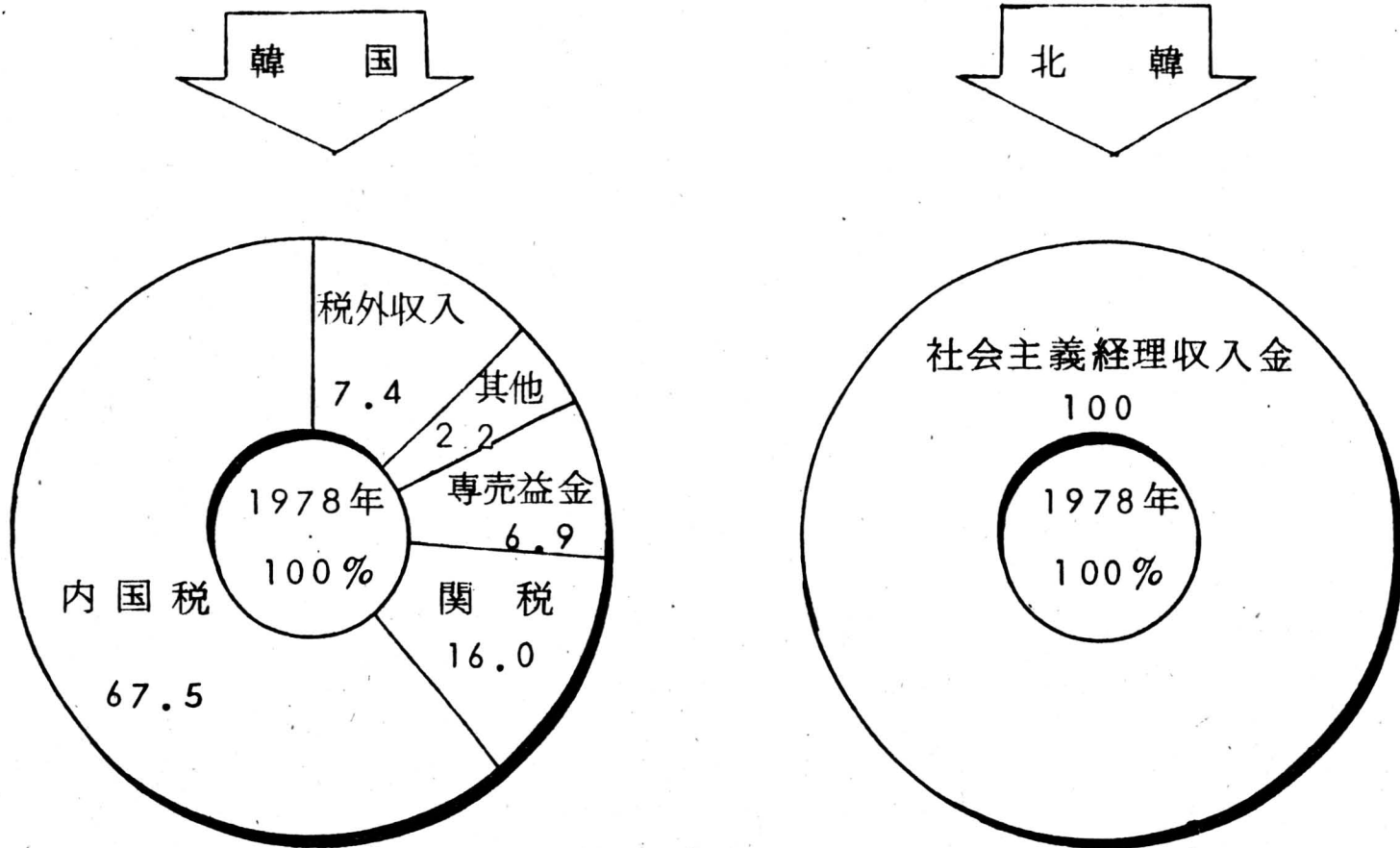
끝으로 其他收入金은 減價償却回收金 및 罰課金등으로 구성되며 歲入

總額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前者는 各 企業所 및 國營工場에서 原価計算에 포함된 減価償却基金中 企業所 自體의 補修나 基本建設에 사용하고 남은 殘餘分을 國庫에 納付하는 金額을 말한다. 罰科金中 罰金은 주로 生産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脫稅行爲에 대하여 課하는 것이며 違約金은 企業所間 또는 企業所와 協同團體間에 체결된 契約의 履行에 있어서 계약에 違배되는 일이 있을때 國庫에 納付하는 金額을 말한다.

이밖에 勤勞所得稅, 文芸所得稅, 地方自治稅등이 74년까지 歲入의 2%정도를 차지했었으나 75년부터 철폐했다고 선언하였다. 北韓의 논리에 따르면 所得稅와 住民稅는 住民들이 負擔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며 다른 稅金들은 共產集團이 당연히 받아야할 分配分이므로 稅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이 經理收入金이라고 부르고 있는것도 이러한 그들의 論理에 따른것 같다. 그러나 去來收入金이라고 부르는 間接稅의 比重이 歲入總額의 70% 水準으로 이는 住民들이 租稅負擔感을 직접 느낄수 없는 것이므로 北韓에서는 이러한 租稅負擔을 크게 하고 있는것에 불과하다.

南北韓 歲入豫算의 構成



3. 農水産部門

가. 農業構造의 比較

韓國은 60年代中半以後 重農政策을 추진하여 쌀, 보리의 自給과 農業所得의 현저한 증가를 이룩하였다. 70년대에 들어 3次計劃期間中에는 全産業이 年平均 11.0%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며, 農林 水産業은 5.8%의 成長率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土地面積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科學的인 營農技術을 導入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農業生産의 自然的 制約과 工業部門의 高度成長의 결과, 韓國의 産業構造는 1966년까지 農林水産業의 生産構成比가 40%이상이던 것이 以後 점차 줄어 78년에

는 18.1%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北韓에서는 農業經營이 協同農場을 주축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1946年 3월 15일 「土地改革實施에 관한 法令」과 「同實施에 관한 臨時措置法」을 공포함으로써, 土地의 沒收와 再分配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3년까지 형식적으로는 集團農場이 아니라 個人農場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休戰後 1954년부터 58년까지 集團農場化를 강행함으로써 현재 約 3,700個의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에 吸收되어 社會主義國家에서도 가장 경직화된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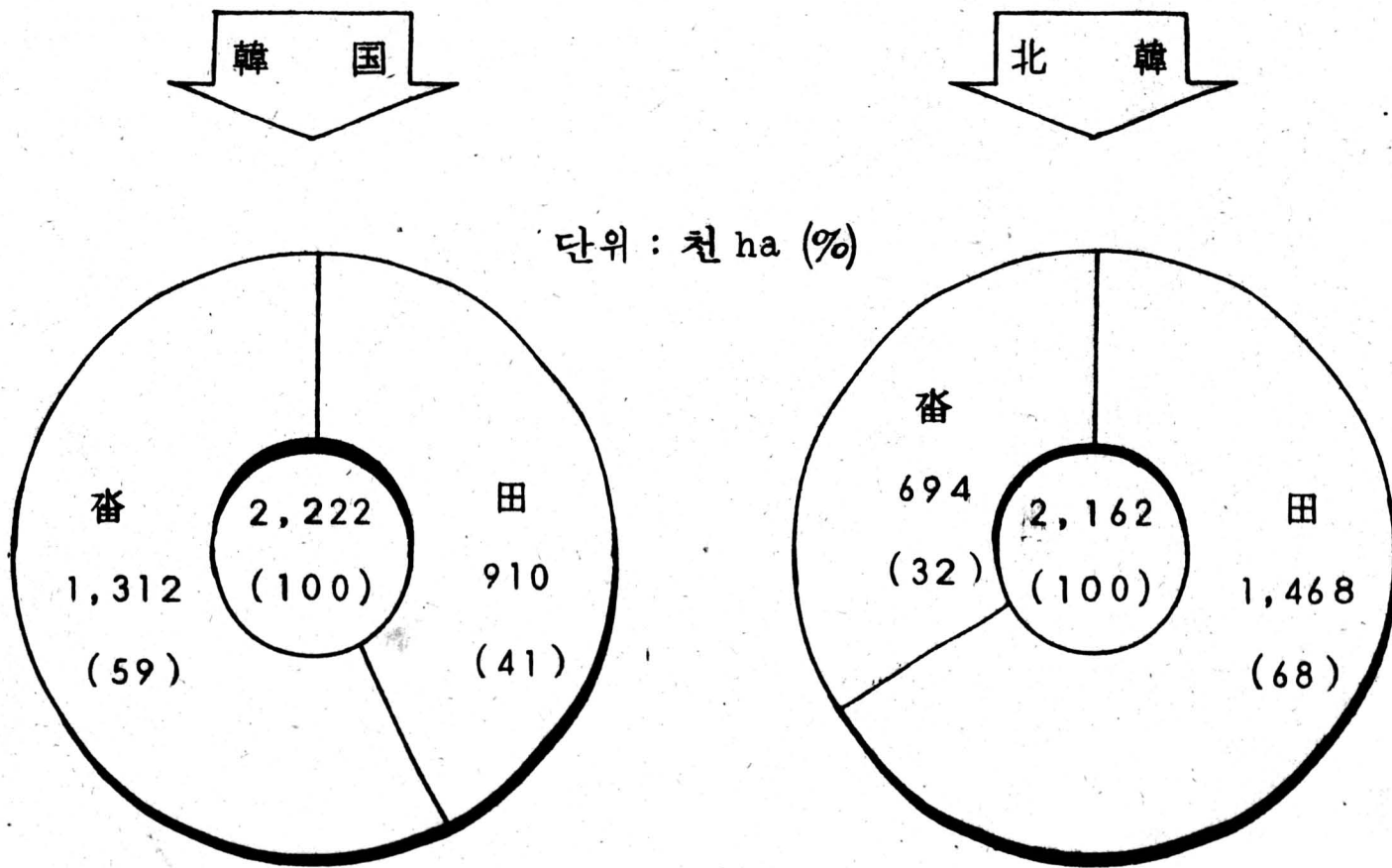
協同農場의 作業體制는 管理委員會 밑에 作業班, 分組 및 作業員이 있으며 1965년 11월부터는 이른바 「分組都給制」를 실시하여 착취를 위한 일종의 請負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5~20名으로 構成된 分組責任下에 모든 生産活動을 責任지게 하는 것으로서, 勞力の 組織性을 強化함과 동시에 勞力時間과 生産結果를 綜合하여 分配水準을 決定하게 하여 低調한 生産実績을 높여 보고자 한 것이다.

北韓은 1960년대에 들어와 10년간에 걸친 7個年計劃기간동안 基本建設投資額 107億圓中 農林水産部門에는 19.7%에 해당되는 29억圓을 투자했으나 GNP에서 차지하는 農業生産의 比重은 5%에 불과했으며, 70년대의 新 6個年計劃기간중에도 農業部門에 대해 全投資額의 20%를 넘는 比重을 투자하였으나 生産額의 比重은 역시 5% 정도에 그쳤다.

나. 農業生産基盤

1978年 현재 韓國의 耕地面積은 2,222천 ha로써 全國土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北韓은 2,162천 ha로써 耕地率이 17.8%로 우리보다 4.2%포인트나 低率이다. 특히 田畝의 비율은 우리는 畝이 1,312천 ha로써 59%, 田이 910천 ha로써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은 우리와 반대로 田이 1,468천 ha로 68%, 畝은 694천 ha로 32%에 불과하다. 따라서 畝面積은 韓國이 北韓보다 1.9배이며, 田面積은 오히려 北韓이 韓國의 1.6배이다.

南北韓 耕地面積 比較



1978년 현재 韓國의 農家人口는 11,528천명으로 全人口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家戶數는 2,224천戶이다. 한편 北韓은 현재 農業人口가 693만명으로 全人口의 40.8%에 해당하며, 農家戶數는 129

만戶로 韓國보다 월등히 작다. 따라서 1戶当耕地面積은 韓國이 0.99 ha 인데 비해 北韓은 1.7 ha 로 높은 편이다.⁵⁾

그러나 韓國에서는 工業化의 進展으로 農業人口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1962년에 비해 78년에는 26.5%포인트가 감소되었으나, 北韓에서는 이와 반대로 매년 0.3~0.5%포인트씩 增加되는 추세에 있다.

農業의 機械化現況을 보면 韓國의 경우 第1次 5個年計劃의 추진과 더불어 農業機械化가 추진되었고, 1974년부터 耕耘機가 加速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1976년 현재 韓國은 트랙터 1,601臺, 耕耘機 194,780臺를 보유하고 있으며, 北韓은 트랙터 7~8만臺를 보유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 1950년대 後半부터 農業機械化에 着手하여 韓國보다 앞서 시작하였으나, 그후의 發展速度는 韓國이 北韓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韓國이 耕耘機를 중심으로 多樣한데 비하여 北韓은 트랙터를 중심으로 劃一的이어서 機械化의 効率에 있어 대단히 低調한 편이다.

化学肥料의 需給實態를 보면 韓國은 1967년까지 상당량을 導入하였으나, 1968년부터 완전히 自給이 가능해졌으며 71년부터 統一系列의 多收穫多肥品種開發로 消費量이 급증하여 약간 自給率의 減少 추세를 보였으나, 1976년부터 生産剩餘狀態로 전환되었다. 현재 韓國의 施肥量은 成分含量으로 정보당 387 kg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정보당 200 kg에 불과한 실정이다.

5) 北韓의 경우 集團農場下에서 戶当耕地面積은 의미가 적다. 다만 農士와 農家數를 대비하여 平均面積으로서의 의미는 있다.

또한 韓國의 育種理論과 技術은 국제수준이며, 이밖에 營農技術도 크게 높아져서 1978년 현재 10a (反) 당 生産량이 쌀의 경우 平均 471 kg이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育種理論에 있어 日帝때의 理論과 소련 및 中共의 學者들의 이론등 3元化로 인해 昏迷狀態에 있으며, 營農技術도 韓國水準에 未達하여 10a (反) 당 收穫량이 370 kg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營農의 現代化

(1978年 現在)

区 分	韓 国	北 韓
農家戶当 耕地面積	0.99 ha	1.7 ha
農業機械化	動力耕耘機 194,780 臺 트랙터 1,601 臺	트랙터 (15馬力換算) 7 ~ 8 萬臺
化学肥料施肥量 (정보당成分含量)	387 kg	200 kg
쌀生産量 (10a 当)	471 kg	370 kg

자료 韓國：農水産部

北韓：国土統一院

以上과 같은 農業生産基盤을 종합 평가해 볼때 韓國은 畓이 北韓의 1.9 배로서 水稻作中心의 農業을 營為하게 되는데 비해, 北韓은 田이 韓國의 1.6 배로서 田作為主의 農業이나, 전체적으로 韓國이 耕地面積이 넓으며 有利한 農業基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人口 1人当耕地面積은 韓國이 6.0a 인데 비해 北韓은 12.7a 로써 2배以上の 수준이며, 水稻作中心으로 勞動力이 豊富한 韓國이 機械化에 있어서는 北韓보다 다소 劣勢이다. 北韓의 경우 集團農場에다 田

作為主이며 더우기 勞動力不足으로 重裝備 機械化를 실시하였으나, 韓國은 零細性을 띤 個人經營方式이며 더우기 水稻作에는 重裝備의 投入에 制約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施肥量, 育種 및 營農技術 등의 모든 면에서 韓國이 우세하여 궁극적으로 土地生産性이 높다.

다. 食糧作物生産実績

우리나라의 食糧生産実績은 土地生産性의 향상과 함께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1977년의 米穀生産량은 6,006천톤, 純糧穀의 全生産량은 7,402천톤이며, 薯類를 합하면 8,005천톤을 생산하였다.

北韓의 경우 生産実績發表가 알곡 總生産量에 限定되어 있어, 穀種別 生産量이나 糧穀換算率, 심지어는 薯類의 包含여부도 明確하지 않아 全般的으로 不分明할뿐 아니라 상당히 誇張되어 있다. 따라서 農業生産基盤을 考慮하여 推定해 볼 수 밖에 없는데, 77년의 경우 薯類를 합한 生産량은 4,761천톤으로 推計되며 이는 同年 韓國의 生産実績보다 3,244천톤이나 적다.⁶⁾

6) 「食糧作物生産量 = 植付面積 × 單位面積當 收穫量」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南北韓 食糧作物生産量

(단위 : 천톤)

区分 年度	韓 国			北 韓		
	穀 物	薯 類	合 計	穀 物	薯 類	合 計
1970	6,160	783	6,943	4,000	306	4,306
1971	6,085	707	6,792	4,069	269	4,338
1972	6,069	674	6,743	3,780	256	4,036
1973	6,148	611	6,759	4,140	243	4,383
1974	7,464	543	6,921	4,172	289	4,461
1975	6,932	740	7,672	4,213	215	4,428
1976	7,535	671	8,206	4,273	208	4,481
1977	7,402	603	8,005	4,540	221	4,761

자료 韓國 : 農水産部

北韓 : 国土統一院

한국의 食糧需給事情은 67년에 비해 77년에는 食糧消費가 29.5% 늘었으나, 同期間中 生産은 26.3%의 증가에 그쳐 그만큼 輸入依存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3次計劃期間中 食糧自給에 注力하여, 米穀은 75년부터 自給率 100%를 초과하였고 全體糧穀의 自給率은 75%以上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韓國과 北韓의 食糧事情을 비교할 때 韓國이 生産 1.68배, 總供給 2.4배, 食糧需要 2.1배로써 충분한 食糧供給을 보장하고 있으나, 北韓은 外貨獲得을 위한 억지 輸出과 備蓄米 증가를 위하여 강력한 規制를 하기 때문에, 糧穀消費水準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20% 内外에 불과하며 1人当消費量도 훨씬 低水準에 있다.

4. 鉉工業部門

가. 政策目標 및 戰略

우리의 經濟開發의 궁극적 목표는 國民生活의 向上에 있으며 이는 풍요한 消費生活를 가능케 하는데 있다. 우리가 生産財를 생산하는 이유도 生産財를 이용하여 보다 高級의 消費財를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그들의 經濟體制의 궁극적 목표는 「人民生活의 劃期的向上」에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建設에만 힘쓰고 日常生活에 직결된 輕工業部門의 건설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人民生活의 向上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産業構造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産業發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韓國의 工業化過程은 1960년대초에는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이는 60년대 中盤부터 輸出産業으로 轉換됨으로써 高度成長을 주도하였으며 70년대에 重化學工業을 개발하였다. 이와같이 우리의 工業化는 国内外市場需要를 토대로 消費財工業을 먼저 개발하고 다음에 生産財生産體制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輕工業의 基盤이 構築되고 社会間接資本施設이 扩充된 바탕하에서 重工業의 劃期的 發達이 이루어지고 있어 全體的으로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開發順序에 있어 커다란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 반대로 消費財市場을 무시하고 重工業을 먼저 개발하였기 때문에 産業構造가 不均衡하게 이루어 졌으며, 社会間接資本施設의 不備, 輕工業의 不振으로 全體의 經濟開發에도 非能率的인 結果를 초래하였다.

나. 鈹工業資源

鈹工業資源面에서 北韓은 월등히 有利한 조건에 있다. 1945년 南北韓 分断時에 重工業의 기반이 되고 있는 鐵鈹石은 90% 이상, 無煙炭은 87%, 有煙炭은 98%가 北韓에 偏在되어 있으며, 풍부한 水資源과 더불어 電力生産도 92%가 北韓에서 供給되었다.

현재 南北韓의 重要 鈹産物埋藏量을 비교하면 石炭은 北韓이 119억 톤으로 韓國의 14.34억 톤보다 8.3배, 鐵鈹은 北韓이 13억 톤으로 韓國의 1.22억 톤보다 10.7배나 된다.

이와같은 地下資源과 動力資源의 偏在를 基礎로, 解放前 日本은 韓半島를 大陸進出을 爲한 兵站基地로서 南에는 農業生産基盤을 構築한 反面 北에는 兵器産業을 비롯한 諸資源關聯産業을 配置시켜 韓半島의 重工業의 80%가 北韓에 集中되었으며 公업총생산액의 60%를 北韓이 占하고 있었다.

南北韓 産業施設配置狀況 (1944년도)

(단위: %)

区 分	地域別		区 分	地域別	
	南韓	北韓		南韓	北韓
工業總生産額	40	60	機械製作 및 金屬加工業	72	28
發電所	8	92	化學工業	18	82
燃料工業	12	88	建材工業	27	73
鈹石採掘業	22	78	紡織工業	67	33
冶金工業	10	90	알곡總收穫高	66	34

자료: 朝鮮經濟地理 (上), 140面.

8.15 解放은 이러한 南北韓間의 補完關係를 根本적으로 破壞했으며, 北韓은 有利한 重工業資源을 바탕으로 1960년대까지 金屬工業이 優位에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資源面에서의 不利한 与件에도 불구하고 開放經濟體制를 바탕으로 經濟發展에 성공하여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重工業部門에서도 北韓을 능가하게 되었다.

主要 鉍物 埋藏量

(單位：백만 ㄱ)

區 分	韓 國		北 韓	
	品 位	埋 藏 量	品 位	埋 藏 量
織 鉍	Fe 30 %	122	Fe 50 %	1,300
重 石	Wo ₃ 0.8 %	12.8	Wo ₃ 65 %	0.232
金	Au 99.9 %	3,612 ㄱ	Au 100 %	1,000 ㄱ
銀	Ag 99.9 %	2,169 ㄱ	Ag 100 %	5,000 ㄱ
銅 鉍	Cu 0.9 %	11.7	Cu 100 %	0.075
石 炭	4,500 Ca1	1,434		11,900
石 灰 石	CaO 45 %	1,487	CaO 50 %	20

자료 韓國：商工部 鉍務局

北韓：国土統一院

工業化의 原動力인 에너지開發에 있어서 韓國의 경우 1978년의 石炭生産実績이 1,805만톤인데 비해 北韓은 5,000만톤을 생산하였으며, 褐炭, 土炭등 有煙炭도 우리보다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78년 韓國의 原油處理能力이 58만 BPSD나 되나, 北韓의 경우 6.7만 BPSD 규모로 아직도 精油工業은 初期建設段階에 있을 뿐이며, 韓國의 에너지 消費가 多樣化되어 있는데 비해 北韓은 石炭中心의

一元화된 消費構造를 갖고 있다.

다. 重化学工業現況

(1) 金屬工業

鐵鋼의 生産과 消費量은 그 나라의 国力과 工業化의 水準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北韓地域의 資源 및 工業立地條件의 優위로 인하여, 해방전에는 약 60 만톤의 製鐵 및 16 만톤의 製鋼施設의 90 %以上이 北韓에 位置하였으며 1970 년이전까지는 生産能力과 生産量등에 있어 상당한 優位에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1972 년 浦項綜合製鐵工場의 第2 高炉의 가동을 계기로 73 년에는 製鋼能力이 218 만톤으로 대폭 擴張되었으며 78 년에는 473.5 만톤으로 北韓의 400 만톤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鐵 鉍石에 基礎한 北韓의 銑鐵 生産量은 322 만톤으로 韓國의 274 만톤보다 많으며 特殊鋼生産은 오랜 操業經驗으로 어느 程度의 技術蓄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韓國은 浦項製鐵工場의 계속 확장과 第2 綜合製鐵工場의 건설로 鋼材의 多様な 需要를 充足하고, 技術水準發達과 함께 生産能力提高로 北韓이 따라올 수 없는 鐵鋼工業國家로 급속히 成長할 것이다.

非鐵金屬의 경우 北韓은 鉍産物을 輸出戰略品目으로 하여 그 開發에 注力하고 있으나 78 年 現在 銅生産은 3 만톤에 불과하여, 同年 韓國의 5.2 만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金 属 工 業 生 産

(단 위 : 천 톤)

区 分	韓 国		北 韓	
	1 9 7 4	1 9 7 8	1 9 7 4	1 9 7 8
銑 鉄	987	2,740	2,300	3,220
製 鋼 能 力	2,253	4,735	2,500	4,000
銅	12 (電 氣 銅)	52 (電 氣 銅)	28	30

자료 韓国 : 經濟企劃院

北韓 : 国土統一院

(2) 化 学 工 業

당초에는 金屬工業 및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 化学工業도 北韓이 位位에 있었으나 현재는 비교가 안될 만큼 韓国이 絶對的인 優位에 있다. 해방당시 北韓에는 年産 48 만톤 규모의 興南肥料工場을 비롯하여 중요한 化学工場이 있었으나 韓国은 1950년대까지 化学肥料를 전량 外國에서 輸入해야만 했다. 그러나 1959년 忠州肥料工場의 建設로 化学肥料 自給의 基礎를 構築하기 시작한 韓国은 1977년 第7 肥料工場의 가동에 힘입어, 1978년 현재 化学肥料生産量 135.5 만 成分톤으로 67년 生産量 18.6 만 成分톤의 7.3 배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同年 北韓의 240 만톤 成分含量 48 만톤 생산의 거의 3 배에 달한다.

北韓의 肥料成分含量이 低率인 理由는 韓國의 肥料生産은 尿素肥料를 중심으로 하는 最新施設인데 비하여 北韓은 成分含量이 낮은 硫安과 같은 肥料 및 100 만톤에 달하는 磷肥料가 生産되고 있기 때문이다.

農藥, 合成樹脂등의 生産量은 더욱 격차가 커서, 1978년 現在 韓国

의 農藥生産量이 13 만톤이나 되는데 비해, 同年 北韓은 2.4 만톤의 生産에 그치고 있으며 그 種類도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主要合成樹脂의 경우 北韓은 7 個年計劃期間中 6~7 만톤 生産을 目標로 하고 6 個年計劃期間中에 이를 3 배로 提高시킬 計劃이라고 發表하였으나 実績發表가 전혀 없고 1976 年 現在 8.5 만톤 程度의 生産能力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며, 이는 同年 韓國의 26.7 만톤 生産施設에 비하면 역시 크게 뒤떨어지는 水準이다.

특히 石油産業은 그 隔差가 커서 韓國의 경우 1964 年에 建設된 蔚山精油를 필두로한 湖南精油, 京仁에너지등 精油工場의 建設로 精油處理能力이 58 만 BPSD 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年間 200 만톤 處理能力의 雄基精油工場의 完工에 힘입어 겨우 6.7 만 BPSD 水準에 이르고 있는 實情이며, 年 250 만톤 處理能力의 烽火化学(白馬精油)工場建設이 推進되고 있다고 한다. 精油能力의 현저한 差異에 따라 石油化学工業은 더욱 큰 差異를 보이고 있어, 1979 年대의 韓國의 急速한 發展에 비해 北韓은 아직도 未開拓狀態에 있다.

化学工業의 生産能力

区 分	韓 国		北 韓	
	1974	1978	1974	1978
化学肥料 (천 톤) 成分屯	750	1,355	416	480
農 藥 (천 톤)	54	130	15	24
主要合成樹脂 (천 톤)	175	267 (76년)	50	85 (76년)
原油處理能力 (천 BPSD)	435	580	40	67

자료 韓國: 經濟企劃院
北韓: 国土統一院

(3) 機械工業

機械工業은 北韓이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고 개발해온 部門이다. 그러나 韓國은 1970 년대에 重化學工業의 重點적 개발과 더불어 놀랄만큼 발전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部門別로 優劣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韓國의 優位에 속하는 機械部門이 많다.

全般的으로 볼때 自動車, 造船등 輸送用機械는 韓國이 압도적으로 優位에 있으나 일부 動力機械는 北韓의 生産能力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韓國의 機械工業의 生産能力은 幾何級數的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不遠間 全部門에 걸쳐서 北韓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韓國의 경우 自動車生産能力은 1974 년 6.3 만대, 75 년 7.0 만대에서 76 년 21.4 만대, 78 년 27.8 만대로 비약적으로 커졌으며, 造船能力도 73 년의 25 만톤 (G/T)에서 74 년 110 만톤, 75 년 239 만톤, 76 년 260 만톤, 78 년 277 만톤 등으로 每年 急速한 伸張을 거듭하고 있다. 北韓은 70 년경 約 1 만대 自動車生産能力에서 現在 2.4 만대 程度의 生産水準에 있는 것으로 評価되며, 特히 大型車의 生産에 注力하여, 乘用車 및 小型車 生産은 韓國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最大船建造도 2 만 DW 톤으로 韓國의 26 만 DW 톤에 크게 뒤떨어지며, 造船能力의 경우 42 만톤 (G/T) 程度에 不過한 實情이다.

그러나 工作機械의 경우 3 만대로 韓國의 2.8 만대보다 다소 優位에 있으며, 트랙터 生産에 注力하여 現在 2.1 만대 (15 馬力기준) 能力水準으로 評价된다.

機 械 生 産 能 力

(1978 年 基 準)

韓	国	北	韓
各 種 工 作 機 械	2.8 만대	各 種 工 作 機 械	3 만대
耕 耘 機	6.5 만대	트랙터(15馬力換算)	21.2 천대
自 動 車	27.8 만대	自 動 車	2.4 만대
造 船 能 力	277 만 G/T	造 船 能 力	42 만 G/T
最 大 船 建 造	26 만 DW 톤	最 大 船 建 造	2 만 DW 톤

자료 韓國: 經濟企劃院

北韓: 国土統一院

대체로北韓은 工作機械와 動力機械에서 다소 앞서 있으며 韓國은 輸送機械와 電氣電子機械部門에서 현저한 優位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北韓의 경우 内向性經濟開發과 採算性을 무시한 軍需産業 위주의 개발로 少数의 大型機械들도 自體生産하는데 注力하였으나 韓國은 對外指向的成長과 市場性에 의하여, 国内市場需要에 맞추어 工業化를 하고 있는 점에 基因한다. 즉北韓은 지금까지 軍需産業의 개발을 위해 관련산업인 動力 및 工作機械工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으나, 韓國은 大型工作機械를 생산할 수 있는 能力이 있더라도 需要가 많지 않거나 經濟性에 따라 大量生産이 불가능한 것은 생산하지 않고 輸出産業위주의 工業化에 따라 電氣電子 및 輸送用機械를 많이 생산하게 된 것이다.

라. 輕工業現況

(1) 政策背景

北韓은 지금까지 軍需産業위주의 重工業建設에만 힘쓰고 日常生活에 直結된 輕工業部門의 建設은 극도로 억제해 왔다. 그 결과 住民들의 消費生活은 전혀 무시되었으며, 封鎖體制下에서 海外市場도 돌아다 보지 않기 때문에 消費財産業의 發展은 전혀 外面되었다.

이에 비하여 처음부터 國民生活을 고려하여 輸入代替産業을 개발하였고, 이는 國內市場뿐 아니라 海外市場의 商品對象이 되기 때문에 곧 輸出産業으로써 全體 經濟成長을 主導하게 하였던 韓國과 그 輕工業水準을 全般的으로 比較하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한 形편이다. 織物, 시멘트, 板유리 뿐만아니라 이제는 電子製品등 일부 重工業까지도 世界的으로 부각되고 年間 輸出額이 100억弗을 돌파하게 된 韓國과 輕工業을 전혀 外面하여 그 좁은 國內市場에서 조차 住民生活에 필요한 物資를 生産하지 않고 있는 北韓의 輕工業은 比較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主要輕工業製品의 生産実績

몇가지 主要輕工業의 指標를 比較해보면 韓國은 1978년에 시멘트生産能力 1,600만톤에 生産実績 1,513만톤을 기록한데 비하여 北韓은 同年 시멘트 生産能力 800만톤으로 韓國의 2분의 1 水準에 있으며, 織物生産의 경우 5.5억m로 韓國의 13억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電子製品의 경우 韓國은 輸出産業으로 큰 비중을 두어 1978년에 TV受像機 483만대, 라디오 477만대, 冷蔵庫 87만대를 生産하였으나, 北韓에서는 라디오의 경우 겨우 國內需要에 相當할 程度이고

TV 受像機는 10만대 정도 組立水準인 것으로 보이며 特히 冷蔵庫는 極小
 量을 소련, 日本등에서 輸入하고 있고 技術水準도 아직 組立段階程度에 있
 어 일반 住民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되고 있다.

主要輕工業製品 生産実績

(1978年 基準)

区 分	韓 国	北 韓
시멘트生産能力(만톤)	1,600	800
織物生産(억m)	13	5.5
TV受像機(천대)	4,830	10만대組立水準
라디오(〃)	4,770	国内需要自給段階
冷蔵庫(〃)	870	組立段階

자료 韓国：經濟企劃院

北韓：国土統一院

근래의 韓国은 所得水準의 向上과 輸出증가를 배경으로 耐久消費財生
 産이 급격히 伸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輕工業部門은 製品의 種類와 品質이 매우 多樣
 化되어 있고, 消費者의 選好와 海外市場의 嗜好에 맞추어 광범위한 生
 産體制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製品의 種類가 단조로울뿐
 만 아니라 生産目標가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生産單位工場에서는 計劃
 量에 맞추기 위한 量的인 生産에만 치중하고 製品의 品質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消費者는 選好의 餘地가 없으므로 品質이 粗雜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의 第9次5個年計劃의 報告書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共產主義國家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며, 특히 北韓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
 가 없다.

마. 技術水準 및 展望

概括적으로 볼때 韓國이 開放體制에 依한 國際技術導入으로 급격한 技術伸張을 이룩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封鎖體制로 自力技術開發能力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性能과 技術이 後進的이다.

첫째 産業用機械部門에 있어서 韓國은 콘크리트믹서, 부록크제조기 등이 國際水準이며, 石炭車등 數10개 種目は 自給水準에 있고, 高濃度크리머, 淨水器등은 輸出段階에 있다. 北韓은 工作機械分野는 量産體制가 갖추어져 있으나 板金部門은 소련등서 輸入依存하고 있다.

둘째 農業用機械分野의 경우 韓國에서는 動力耕耘機등 각종 農機械가 대부분 國産化하고 있으며, 動力機械는 96~97%, 動力噴霧機는 86%의 높은 國産化率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北韓에서는 트랙터등 20여종을 生産하고 있는데 베어링등 特殊分野는 소련서 輸入하고 있다.

셋째 輸送用機械는 대체로 韓國이 우위에 있으며 自動車는 특히 乘用車 小型車의 生産技術이 우월하며, 性能面에서도 단연 压倒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大型車生産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技術水準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베어링, 点火機등을 소련, 日本, 프랑스등에서 購入하고 있어 國産化率이 低率이다.

넷째 電氣電子機械도 韓國이 우위에 있으며, 電氣部門은 北韓도 다소 발달했으나, 電子工業部品은 压倒적으로 韓國이 우위에 있다. 韓國의 경우 73년부터 컬러TV를 生産하게 되었고, 세탁기는 北韓보다 7~8년 앞섰으며, 電子計算機도 앞서 있다.

앞으로의 發展에 있어서는 韓國은 3차계획이후 重化学工業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輸出産業으로서의 輕工業 發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綜合的인 成長力이 커서 4次計劃이후에는 精密機械部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重工業化가 가능할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重工業優先政策을 취하였으나 産業間의 發展隔差로 인한 市場規模의 협소와 採算性的 저율로 成長面에서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앞으로 第2次 7個年人民經濟計劃(78~84)의 成敗与否에 따라 工業化의 展望이 크게 左右될 것이다.

5. 社会間接資本

가. 概 念

社会間接資本(Social Overhead Capital - SOC)은 財貨와 서비스의 생산에 直接 사용되는 資本이 아니라 間接적으로 生産活動을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必要한 資本으로 直接生産資本(Directly Productive Capital - DPC)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 내용은 港灣, 鐵道, 道路, 通信 및 發電設備등의 設備物로써 일반적으로 公益事業이기 때문에 公共所有(public ownership)의 형태를 취하며, 설사 個人所有의 경우라도 政府의 規制를 받는 規制産業(regulated industry)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社会主義國家에서는 모든 産業이 公共所有이며 中央政府의 計劃에 의하여 생산을 하므로, 그 所有形態에 있어서나 또는 規制産業으로써 一般産業과 社会間接資本을 구분할 수 없다. 다만 北韓에서와 같이 生産的建設과 非生産的建設이라는 말로 直接生産部門과 間接資本部門의 區別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 語義가 뜻하는대로 非生産的建設이 社会間接資本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資本主義國家에서 있어서 社會間接資本은 工業發展의 環境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에 대한 投資가 重視되며, 특히 開發初期 韓國의 經濟成長은 社會間接資本이 先導的 役割을 하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의 경우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는, 投資規模가 龐大하고 懷妊期間이 長期인 反面 投資效果의 量的 測定이 困難하다는 特性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非生産的 投資로서, 投資規模가 相對的으로 작다.

1970년의 경우를 例로 들면 韓國은 社會間接資本에 全産業投資의 37.5%, GNP의 10.5%를 投資한데 비해, 北韓에서는 生産的投資의 優先으로 社會間接資本은 總投資의 27.7%, GNP의 8.3%에 그쳐 韓國보다 그 比重이 작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은 比重조차도 점차 작아지는 傾向에 있어 第2次 7個年計劃期間中에는 總投資의 20%미만을 社會間接資本에 投資하도록 計劃되어 있다.⁷⁾

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比較

(1) 電力

電力施設은 韓國이 水資源등 條件의 不利로 해방전에는 92%가 北韓에 偏在되었던 것이나 1978년말 현재 發電施設容量에 있어 韓國은 692만 KVA로써 北韓의 506만 KVA를 능가하고 있으며, 發電量도 韓國이 315억 Kwh로써 北韓의 246억 Kwh를 능가하고 있다. 國民經濟發展에 있어 에너지産業은 典型的인 社會間接資本으로서 外部經濟的인 效果와 新

7) 北韓의 社會間接資本은 그들의 非生産的 建設에 해당되나 우리의 개념과 맞추어 비교하겠다.

規産業의 投資를 유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北韓의 경우 水資源이 풍부하여 水力中心으로 開發되었으나, 점차 火力發電施設의 比重을 높여 現在는 水·火力의 比率이 半半정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火力發電의 燃料로서는 大部分 石炭을 사용하고 있어 全體 石炭生産量의 40% 이상이 여기에 消費되고 있으며, 石炭供給에 있어서의 輸送問題는 火力發電所建設의 큰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이에 比하여 韓國은 水·火力發電施設 比率이 19%대 81%로 火力發電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火力發電燃料로서는 주로 石油가 利用되고 있다. 特히 1977년의 古里原子力發電所 稼動으로 電力供給에 있어서의 새로운 局面이 열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原子力, 潮力, 水力의 比重을 점진적으로 높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全體的으로 볼때, 生産費用面에서는 水力의 比率이 높고 火力發電의 燃料로 自家生産되는 石炭을 사용하고 있는 北韓이 다소 有利한 立場에 있으나, 産業生産增加에 따른 供給能力의 伸縮性은 技術과 資本能力이 높은 韓國이 압도적으로 優勢하다.

(2) 運 輸

鐵道는 종래 輸送手段의 핵심이었으며, 현대에는 高速道路, 海運, 航空 등의 발달로 輸送手段이 크게 분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貨物輸送에 있어서는 鐵道の 役割이 중요하다. 韓國의 鐵道는 1978년 현재 總延長 5,788 km이며 이중 電鐵은 826 km이고, 車輛裝備에 있어서는 디젤機關車 404 臺를 포함한 機關車 543 臺, 客車 1,758 臺, 貨車 15,937 臺를 보유하고 있다. 輸送実績은 旅客 20,055 백만人km, 貨物은 10,926 백만

톤km이다.

北韓의 경우 立地条件上 東西間의 海岸連結輸送이 불가능하므로 鐵道 依存이 절대적이며, 따라서 東西連結鐵道の 建設에 고심하고 있다. 北韓은 1978년 현재 鐵道總延長이 4,280 km이며, 電鉄은 전체의 41.3%인 1,769 km로 韓國의 2.1배로서 電鉄의 比重이 크다. 北韓은 70년대에 進行된 6個年計劃의 수행과정에서 輸送問題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특히 東西의 工業地域을 연결하는 鐵道建設과 電鉄化에 크게 注力하였다.

韓國의 경우 道路輸送은 갈수록 그 비중이 커져 1978년 현재 自動車輸送比重은 人員面에서 鐵道の 18배, 貨物은 3배로써 모든 輸送手段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韓國의 道路總延長은 45,955 km이며 高速道路가 1,225 km로 2.7%를 차지하고 鋪裝道路의 比率은 29.5%이다. 国土 1km²당 道路保有率은 0.46 km로써 다른 先進國들보다는 낮으나 高速度道路의 建設로 全國의 1日生活圈을 이룩하였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公路輸送은 鐵道와 海運輸送의 補助手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低地帶인 西海岸과 平壤一帶의 道路만이 정비되어 있다.

大陸道路로서 南北 縱貫線이 山岳地帶를 길게 꿰뚫고 있으며 1978년에 平壤·元山間 高速道路가 開通되었다고 發表되었다.

北韓의 道路總延長은 20,775 km이며 高速化 道路는 이의 1.7%인 346 km에 불과하고, 鋪裝率 역시 3%의 낮은 水準에 있어 道路裝備가 극히 粗惡한 形便이다. 특히 現在 1km²당 0.17 m에 불과한 道路密度는 北韓의 自動車輸送比重이 적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海運에 있어서는 韓國은 經濟發展에 따라 그 비중이 날로 증가되어

1978년 현재 港灣施設은 荷役能力 6,500만 G/T, 船舶生産能力은 277만 G/T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東西海岸의 連絡이 不可能하여 海運은 鐵道の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며, 年間 荷役能力은 3,700만 G/T 水準에 있다.

韓國에서 輸送手段間의 分担率을 보면 貨物輸送의 경우 鐵道가 17%, 道路가 50%, 海運이 33%로 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의 輸送은 鐵道依存度가 90%이상이며, 道路나 海運輸送은 鐵道輸送의 補助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 北韓은 東西海岸地帶를 따라 産業立地가 이루어져 沿岸輸送이 중요함에도 道路 및 海運輸送이 東西沿岸을 연결시켜주지 못함으로 鐵道輸送에 과도의존하게 된 것이다. 鐵道나 道路建設에서 山岳과 河川을 극복해야 하는 地形上的 곤란과 그 建設期間의 長期性은 投資效率을 극도로 낮게 하고 있다.

航空에 있어서 韓國은 78년 현재 旅客輸送 416.9만명, 貨物輸送 15.3만톤으로 62년보다 각각 49배 및 55배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北韓은 1959년 平壤-모스크바, 平壤-北京間의 定期航路를 개설하였으며 国内航路는 1960년 폐쇄하였다가 70년에 復活되었는데 軍의 직접 통제 하에 있어 규모면에서 지극히 영세하다.

(3) 通 信

韓國의 通信施設은 크게 발전되어 1978년 현재 電話普及率이 100人當 5臺, 自動化率 86%, 市外 및 長距離電話의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77년에는 第2衛星通信地球局이 完成되어 美国·日本은 물론이며 非敵性共産國과의 通信網도 擴大되었다. 韓國의 경우 通信部門을 카바하는 電信電話機器의 製造業이 크게 발전하여, 国内需要는 물론이며 높은 海外輸出実績을 올림으로써 通信事業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電信電話機能이 動亂後의 破壞를 복구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으며, 78년 현재 市内公用電話가 30萬臺로서 個人電話는 特殊高位層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國際通信의 경우도 소련과 중공을 중개로 하고 있으며 아직 國際電信電話聯盟에도 加入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郵政事業도 韓國은 우체국이 2,003局이며 1人當利用數가 24통인데 北韓은 1,394局으로 추정되며 1人當 19통의 利用度를 보이고 있다. 北韓의 경우 電信電話에 비해 郵政事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個人交信은 거의 郵便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社会間接資本施設

1978년

区 分	韓 国	北 韓
發電施設容量 (천 KVA)	6,920	5,060
發電量 (백만 KWH)	31,500	24,600
鐵道總延長 (km)	5,788	4,280
電 鐵 (km)	826	1,769
道路總延長 (km)	45,955	20,775
高速道路 (km)	1,225	346
荷役能力 (천 M/T)	65,000	37,000

자료 韓國 : 經濟企劃院

北韓 : 国土統一院

6. 貿易 및 國際收支

가. 貿易規模

우리는 이미 南北韓經濟體制 및 政策運營의 基本路線에 관한 비교에서 北韓의 아우타르키(Autarky)體制가 資本과 資源이 다같이 不足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였다. 南北韓은 다같이 國土가 狹小하고 資源이 不足하므로 貿易依存의 擴大가 불가피하며 더우기 開發初期에는 投資財源도 不足하므로 先進國과의 資本 및 技術協力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經濟政策의 基本방향을 閉鎖的인 아우타르키體制로 택하였기 때문에 對外貿易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실시되고 있으며(社會主義憲法第34條) 貿易部 산하의 國營商社와 그밖에 協同貿易商社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貿易政策의 方向도 國民經濟가 對外指向的이 아니기 때문에 貿易이 對內經濟에 從屬되는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社會主義經濟建設에 필요한 物資를 一定한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하고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輸出計劃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이 처음부터 開放體制를 指向하여 貿易 및 資本導入을 擴大하고, 이에 適應할 수 있는 産業化政策을 취하여 輸出主導型의 成長과 國際競爭속의 工業化를 실시해 왔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南北韓의 貿易規模는 韓國은 1978년에 輸出 127.1억\$, 輸入 149.7억\$로 貿易總額이 276.8억\$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同年 輸出8.7

억 \$, 輸入 9.3억 \$로 貿易總額이 18억 \$에 불과하다. 이는 同年의 韓
 國의 貿易規模에 비하면 輸出은 6.8%, 輸入은 6.2%, 貿易總額은 6.5
 %에 불과하다. 더우기 韓國은 貿易伸張이 매우 급속하여 1962~78년
 의 17년동안 輸出伸張率은 年平均 39.7%, 輸入伸張率은 25.4%나 되
 는 급속한 伸張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輸出入規模가 크게 伸張될 것이
 기 때문에 南北韓間의 貿易規模의 隔差는 계속해서 더욱 擴大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韓國은 현재까지 輸出入의 不均衡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나 長
 期間에 걸쳐 輸出伸張率이 輸入伸張率보다 월등하게 컸기 때문에 그 격
 차는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不遠間에 貿易収支의 安定的인 均衡 및 黑
 字轉換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1960년대까지는 아우타르키의
 原則에 따라 비교적 輸出入規模의 격차가 적었고 거의 균형을 유지했
 었으나, 70년대에 들어와 外債에 依存하기 시작하면서 貿易収支赤字가
 커지는 段階에 있다.

貿易規模

(단위: 백만弗)

区分 年度	韓 國			北 韓		
	輸 出	輸 入	總 額	輸 出	輸 入	總 額
1970	835.2	1,984.0	2,819.2	366.0	439.0	805.0
1971	1,067.6	2,394.3	3,461.9	301.9	564.1	866.0
1972	1,624.1	2,522.0	4,146.1	399.0	639.7	1,038.7
1973	3,225.0	4,240.3	7,465.3	497.7	842.7	1,340.4
1974	4,460.4	6,851.8	11,312.2	677.2	1,303.1	1,980.3
1975	5,081.0	7,274.4	12,355.4	814.0	1,092.7	1,906.6
1976	7,715.3	8,773.6	16,488.9	658.1	828.8	1,486.9
1977	10,046.5	10,810.5	20,857.0	680.0	820.0	1,500.0
1978	12,710.6	14,971.9	27,682.5	870.0	930.0	1,800.0

자료 韓國: 經濟企劃院
 北韓: 国土統一院

나. 商品別 및 地域別 貿易構造

輸出商品의 構造는 南北韓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韓國은 開發以前인 1961년까지만 해도 工產品輸出이 18.2%에 불과하고 1次產品이 81.8%를 차지했으나, 1963년부터 工產品이 51.7%로 過半을 차지하게 되었고, 1978년에는 89.8%로 증가된 반면 1次產品은 10.2%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韓國의 産業構造가 開放體制에 적응하여 高度化되었고 輸出産業이 經濟成長을 主導한 까닭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1975년 현재 1次產品의 輸出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工產品은 35%에 불과하다.

輸入에 있어서는 韓國이 1977년 현재 原料 및 燃料의 構成比가 54.3%, 資本財가 27.8%이며, 消費財는 1次產品 8.4%, 工產品 3.5%를 포함 11.2%에 불과하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輸入品の 대부분이 工產品이다.

商品의 輸出入構造를 비교할 때, 韓國은 工產品(製品)輸出에 原資材 輸入依存의 형태로서, 産業技術의 高度化를 반영하고 國際競爭力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北韓은 原資材를 輸出하고 製品을 輸入하는 落後된 貿易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北韓은 經濟沈滯를 탈피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을 시도하고 있으나 對內的인 投資條件의 未備로 外資의 受容能力(absorptive capacity)이 없는데다가 國際競爭力이 있는 輸出産業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償還能力(debt service capacity)이 없어서 元利金償還을 이행하지 못하여 困境에 빠지고 있는 형편이다.

南北韓 輸出商品構造 (1975년)

(단위 : %)

区 分	韓 国	北 韓
一 次 産 品	11.7	64.6
工 産 品	88.3	35.4

자료 韓國 : 經濟企劃院

北韓 : 国土統一院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1963년까지만 해도 共產圈과의 貿易比重이 總貿易量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되었으며 특히 70년대에 들어와 對西方貿易增加率이 대폭 높아져 1974년에는 53.6%로 對共產圈 貿易比重을 한때 능가했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다시 對共產圈과의 貿易比重이 높아져, 아직도 소련 및 中共등 共產圈과의 貿易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自由圈과의 貿易增大는 주로 對日貿易의 增大에 基因한 것인데, 특히 1972년 1월 「日朝貿易擴大合意書」의 調印이후 크게 伸張되었으며, 機械 및 化學工業製品을 대폭 輸入하고 있다.

그리하여 1974년의 對日輸入은 前年對比 2.5배로 급증되었으나 輸出은 26.0%의 증가율에 그쳐 對日貿易赤字가 크게 擴大되었다. 이와 같은 貿易赤字의 擴大는 對外經濟協力依存의 擴大를 의미하나, 최근 外資의 不足으로 對西方國家에 대한 支払延滯事態가 속출하게 됨으로써 貿易擴大가 難관에 봉착하였으며 이는 75년 이후 貿易規模가 점차 감축된 것으로 立證된다.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

(단위 : 100 만불)

年 度	貿易總額	共 産 圏		自 由 圏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1971	866	734	84.8	132	15.2
1972	1,039	796	76.6	243	23.4
1973	1,340	820	61.2	521	38.8
1974	1,980	918	46.4	1,062	53.6
1975	1,907	1,032	54.1	875	45.9
1976	1,487	984	66.2	503	33.8

자료 : 国土統一院

7. 国民生活水準

오늘날 自由主義國家에서는 福祉社會를 목표로 하여, 인플레이션 없는 持續的 成長으로 失業率을 極小化하고, 租稅政策과 社會開發支出로 階層間的 富의 平等을 추구하며, 부단한 技術革新으로 勞動生産性을 높이고, 生産性賃金體制를 만들어 대폭적인 賃金引上을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을 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들에 있어서는 勞動生産性의 低下와 輕工業部門의 沈滯로 지난 1950년대 이후 自由主義國家들보다 國民生活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北韓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특히 農産物價格의 低評價와 國營工業物價格의 高評價로 人民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들면 農産物供出價格을 時價의 25%로 集團農場에서 收買하므로 75%는 실질적인 租稅로 吸收하는 셈이며, 工業製品價格을

高價로 販賣하는 것은 그만큼 間接稅를 부과한 것과 같다. 현재 소련의 경우에도 일부 消費財 工產品價格은 國際時勢의 10倍以上이나 비싼것이 허다하다.

南北韓의 異質的 經濟體制下에서 國民의 生産水準을 比較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價格構造, 消費樣相등의 比較는 北韓의 統計資料의 信憑性등 制約要因이 많다. 따라서 國民總生産物인 財貨의 分配, 再生産을 위한 投資費의 負擔과 軍事費의 支出額등을 고려하여 1人當消費水準의 대강을 比較해 볼수 밖에 없다.

北韓에 있어서는 GNP에 대한 國家豫算, 즉 公經濟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私經濟는 나머지 20~30%에 불과하며, 이는 소련 및 東歐諸國의 豫算規模가 GNP의 60~70%인것 보다 公經濟의 比重이 높다. 公經濟는 財政 및 投資部門이며 私經濟는 消費部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韓國은 1978년도의 GNP에 대한 財政의 比率이 15.3%이고 投資率이 31.7%이므로 民間消費는 53%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國民總生産에 대한 支出에 있어서 民間消費의 比率은 62.2%이다. 이는 投資의 일부재원이 海外貯蓄에 의존하고 있으며 一般財政部門중 投融資의 比率이 있기 때문이다. 아뭏든 GNP에 있어서 民間經濟活動 특히 民間消費의 比率에 있어 韓國은 北韓보다 월등히 높으며, 投資率도 대부분 民間貯蓄이 담당하고 있으나 北韓은 源泉的으로 民間經濟의 비중이 적다.

또한 生産의 側面에서도 北韓은 工業總生産가운데 消費財는 14%정도 밖에 生産되지 않는다. 北韓은 開發初期부터 소련의 스탈린식의 重工業優先主義를 표방하여 産業間의 不均衡을 초래하였고, 消費財供給의 不足과 工產品價格의 격심한 高價構造로 個人消費를 어렵게 만들었다.

1978년 韓國의 1人当貯蓄額은 337.9 \$로 1人当 GNP 1,279.1 \$의 26.4%이었으나 北韓은 1人当投資額이 202.9 \$로 1人当 GNP 541 \$의 37.5%를 차지하고 있어 投資率이 韓國의 貯蓄率보다 월등히 높다.⁸⁾ 한편 GNP에 대한 國防費負擔率은 韓國이 5.4%인데 비해 北韓은 22.4%이며 1人当國防費支出額은 韓國이 68.8 \$인데 비해 北韓은 121.3 \$이다.

1人当 GNP에서 1人当貯蓄額과 國防費를 차감한 것을 1人当消費額으로 본다면⁹⁾ 韓國은 872.4 \$이나 北韓은 216.8 \$에 불과하다.

엄격히 따지면 政府消費를 제외해야 하겠으나 民間消費와 政府消費를 합한 總消費를 人口로 나눈 것이 1人当消費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대로 比較하였다.

1人当 GNP와 1人当消費(1978년)

(단위: 弗)

区 分	韓 国	北 韓
1人当 G N P	1,279.1	541
貯 蓄 率	26.4 %	37.5
1人当貯蓄額	337.9	202.9
國防費 / G N P	5.4 %	22.4 %
1人当國防費	68.8	121.3
1人当消費	872.4	216.8

자료 韓國: 經濟企劃院

北韓: 国土統一院

8) 韓國의 1人当投資額은 393.5 弗이다. 貯蓄額이 이보다 낮은것은 海外貯蓄에 依存하기 때문이다. 北韓은 投資는 財政部門으로서 收入에 先行되는 強制貯蓄이므로 貯蓄과 같다.

9) 이 消費額에는 政府消費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南北韓의 實質的인 消費水準은 韓國의 872.4 \$ 對 北韓의 216.8 \$ 로써 約 4 對 1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消費水準의 차이는 南北韓의 投資財源負擔과 軍事費負擔의 차이에 기인되며, 北韓은 投資의 대부분이 軍需産業에 投入되기 때문에 高投資率에 비해 成長率이 상대적으로 低率인 것이므로 經常軍事費와 軍需産業의 過重한 負擔으로 消費水準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이 그들의 好戰性을 버리고 經常軍事費와 軍需産業中心의 非效率的 投資를 경감시키지 않는 限 北韓住民의 生活向上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北韓은 金日成 唯一體制를 固守하면서 經濟沈滯에도 불구하고 이를 戰時經濟體制로 運營함으로써 住民들에게 무리한 經濟負擔을 強行해 나가고 있다. 예를들면 生産工場에도 軍隊式編制를 도입하여 従業員이 300名以上이면 大隊, 1,000名以上이면 聯隊로 편성하여 軍隊式 命令生産과 各種의 社会主義的 競争運動을 展開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命令生産은 投資의 效率을 무시하기 때문에 勞動生産性을 低下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共產主義國家의 最大의 弱點이 勞動生産性의 低位에 있음은 이미 레닌誕生 100 周年記念 蘇 聯邦最高會議에서 브레즈네프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소련을 비롯한 共產圈에서는 經濟沈滯의 根本原因인 低生産性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이 不可避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政策轉換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은 勞動生産性의 低位를 軍隊式 勞動強化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住民들의 勞動力搾取를 강화함으로써 實質的인 所得과 生活水準의 低下를 強要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南北韓 經濟構造의 强弱点 및 經濟成長 展望

1. 經濟開發成果

가. 韓 國

1962년부터 경제개발에 착수한 韓國은 1次計劃期間에 年平均 7.9%, 2次計劃期間에 9.6%, 3次計劃期間에 9.8%로 成長을 加速化하면서 全期間(62~78)에 9.3%의 高度成長을 持續하였음은 앞서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成長의 段階的特徵은 이미 앞서도 지적하였으나, 여기서 成長의 結果를 綜合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次産業의 成長과 특히 2次計劃以後의 重化学工業의 개발로 産業構造가 크게 改善되었다. 이와같은 産業構造改善은 劃期的 輸出増大의 基盤이 되었다.

둘째 開放體制下에서의 對外指向의 成長을 추진하여 國際經濟協力の 증대와 貿易依存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1964년부터 韓日國交正常화와 外資導入의 적극추진으로 投資財源을 조달하였고 貿易自由化의 擴大로 世界經濟의 潮流에 順응하면서 輸出貿易의 刮目할만한 擴大를 성취하였다.

셋째 自立經濟의 基盤을 構築하였다. 韓國經濟는 6·25 動亂 以後 外國援助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의 開發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外援을 止揚하게 되었고, 開發初期에는 外資導入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外資의 依存率도 감소되어 自立的成長의 基반을 확립하였다.

이와같이 韓國의 開發戰略은 國民經濟의 成長潛在力을 總動員하며 國

際經濟協力과 國際競爭力을 向上시켜 開放體制에 의한 對外指向的인 工業化過程에 성공함으로써, 自然資源의 不足과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投資財源의 부족을 극복하고 高度成長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工業化過程에 있어서는 輕工業에서 重工業, 나아가서 重化學工業으로의 段階的 發展을 추구하여 현재 重化學工業構成을 증대시키는 과정에 있다. 지난 1961년에는 輕工業對 重工業의 비중이 71%대 29%이던 것이 1978년에는 45%對 55%로 構造的인 改善을 이룩하였다.

나. 北 韓

北韓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開發初期부터 重工業優先政策을 추구하여 「全面的인 技術革新」을 내걸고 1961년부터 7個年計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封鎖體制下에서 國際的인 先進技術의 導入을 外面하고 自體技術을 向上시키는데에는 限界性이 있으며, 더우기 資源과 資本不足國家이면서 強制貯蓄手段에 의존한 開發計劃은 資本動員은 물론 그밖의 計劃遂行에 차질을 빚어 7個年計劃의 기간을 3個年延長하였으나 石炭과 電力部門은 当初計劃의 70%에 未達하였고, 70年代에 推進한 6個年計劃 역시 1年延長에도 불구하고 失敗로 끝났다.

北韓은 開發初期부터 輕工業은 開發하지 않고 重工業에만 置重하였기 때문에 國民生活에 필요한 生必品の 부족으로 工產品消費財의 高價政策을 취하였으며, 輕工業基盤이 없는 重工業開發로 인해 産業間 不均衡이 격심하여 開發成果를 둔화시켰다. 따라서 強制貯蓄에 의한 投資率이 年 35~40%의 高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成長率은 低率에 그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北韓의 支配層이 住民들의 不滿을 해소할 目的으로 輕工業發展에 관심을 기우리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軍

需産業爲主의 重工業優先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輕工業生産実績은 微
微한 形편이다.

住民生活은 生産面에서의 工產品消費財의 不足으로 消費物資에 限界性
이 있을뿐 아니라, 分配面에서도 年35~40%의 投資率을 담당하기 위
한 強制貯蓄과 GNP의 20%를 上廻하는 軍事費負擔率로 인해 國民의
消費水準은 극히 低率일 수 밖에 없다.

北韓은 1960년대의 7개년계획기간중 中·蘇紛爭과 共產圈内の 分裂
로 對外協力을 얻을 수 없었으며, 對內的으로는 軍需産業中心의 開發이
一般産業 개발을 저해함으로써 全體의 經濟成長을 鈍化시켰다. 이러한
成長鈍化는 1970년대에 더욱 심각해졌고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對自
由圈經濟協力을 모색하였으나, 自主國防路線에 입각한 軍需産業과 封鎖體
制下의 重工業優先政策을 변경하지 않는한 國際競爭과 對外適應力을 형
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년이 못된 오늘날 對外支給能力의 不足으로
貿易을 다시 減縮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構造的 強弱點 比較

가. 韓 國

南北韓經濟의 構造的強弱點을 比較할 때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外
向性成長(outward-looking growth)을 추구해온 韓國과 內向性成長
(inward-looking growth)을 추구해온 北韓의 開發戰略의 評價에서
찾을 수 있다.

韓國이 外向性成長에 성공할 수 있었던 要因은 開發初期부터 外資導
入의 受容能力(absorptive capacity)이 충분하여 總投資에 대한 成

長率, 즉 資本產出量 (capital-output ratio)이 先進工業國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高度成長을 기할 수 있었던 點이다. 그 결과 韓國은 GNP는 물론이며 1人當 GNP에 있어서도 北韓을 早期에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外向性成長의 개발전략에 따라 産業構造를 輸出産業優先으로 개발함으로써 일찍부터 國際競爭力을 向上시킨 결과 1978년 현재 127億弗의 輸出規模를 달성케 된 것이다.

반면에 韓國經濟는 外資依存과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의 繼續이라는 弱點을 갖고 있다. 그동안의 大幅的인 輸出伸張으로 1977년에는 慢性的인 赤字를 止揚할 수 있을 정도로 國際收支가 好轉되었으나, 今年들어 油價쇼크로 인한 世界的인 景氣의 下落과 保護貿易主義 傾向의 抬頭 등으로 다시 赤字幅이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韓國은 輸出商品의 多樣化 및 高級化와 輸出地域의 多邊化로 現在의 世界的 不景氣 및 輸入障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外資의 依存도 점차 止揚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南北韓의 構造的差異點을 들 수 있다. 韓國의 경우 1960년대부터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등으로 段階的인 工業化에 성공하고 있는 점을 長點으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國內外 市場需要와 生産企業에 利潤原理가 적용됨으로써 創意와 意慾이 넘치며, 技術革新에 있어서도 國際競爭下에서 國際水準을 능가하게 된 것이 커다란 強點인 것이다.

나. 北 韓

北韓은 韓國에 비하여 地下資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점에서 工業資源面에서의 強點을 갖는다. 그러나 北韓도 궁극적으로는 資源이 不足한 狀態이며 따라서 對外貿易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封鎖體制下에서 對外協力과 貿易을 무시하였음은 開發面에서의 커다란 脆弱點이 되고 있다

北韓은 重工業優先政策으로 金屬工業과 機械工業의 一部 部門에서는 現在 韓國보다 優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軍需工業이 系列化되어 있어 비교적 발달된 點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特殊産業部門의 發展은 一般産業의 發展과 연관성을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制約要因에 직면하게 된다.

北韓은 社会間接資本施設과 輕工業部門에서 크게 落後되어 있으며, 특히 開發財源의 制約과 國際적인 技術水準에로의 提高가 곤란하므로 今래에 있어서도 開發戰略을 轉換하지 않는 限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展 望

韓國은 1970년대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重化學工業部門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機械工業, 金屬工業, 化學工業, 造船工業, 電氣電子工業등의 重要産業이 成長主導産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開發着手은 北韓에 비하여 늦었으나, 成長潛在力이 현저히 컸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生産能力의 優位를 確保하고 있으며 一部 劣位에 있는 部門도 不遠間 優位로 逆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北韓은 GNP 成長의 落後性을 止揚하기 위하여는 封鎖體制로부터 開放體制로 移行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까닭은 資源이 不足한 國家는 근본적으로 아우타르키에 限界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放體制로 移行하려면 産業構造와 開發戰略에 있어 國際市場에의 적응력을 確立해 나가야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閉鎖的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北韓은 80 年대의 前半期에 이와같은 基本路線의 方向決定을 위한 重大한 試鍊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이미 1965 年부터 變動價格制와 利潤原理의 導入등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이 加해졌으며, 中共도 최근 4 人體制의 崩壞와 華·鄧體制의 등장으로 經濟政策路線의 修正이 加해지고 있으므로, 資源이 不足한 北韓의 경우 역시 스탈린式의 아우타르키體制를 固守할 수는 없는 立場인 것이다.